

윤석열 대통령,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국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증진에 앞장설 것"

윤석열 대통령,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회의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3. 30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인도-태평양지역회의에 참석해 환영사를 했다.

대통령은 "한국은 지난해 12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으며, 오늘 회의는 인태전략에 대한 우리정부의 실천의지를 천명하는 자리"라고 이번 회의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정학적 중요성이 높아진 인태지역 국가들이 모여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정표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의 의미가 크다"며 회의를 높게 평가했다.

대통령은 이어진 연설에서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선동, 폭력,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들이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일체가 부패이며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한다"

며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경고했다. 대통령은 이에 더해 "법에 기초한 성역없는 수사과 엄정한 처벌이 부패 대응의 기초"라고 강조하고 "자유, 인권, 법치, 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하여 초국가적인 부패 범죄에 대처해야 하며, 한국이 민주주의 증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한국이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일궈내도록 지원해준 국제사회에 보답하고자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지원이 필요한 인태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향후 3년간 1억 불 규모의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주주의 증진 프로그램도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회의에는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히쉬게 남바타르' 몽골 법무부장관, '빌라미 우아시케 라투' 통가 경제개발장



관, '사이먼 코페' 투발루 외교장관, '아메드 칼릴' 몰디브 정부장관 등 각국 정부 대표를 비롯하여 반부패 이슈 관련 국제기구, 학계,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하여 '부패 대응의 도전과 성과'를 주제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어제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

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도 5주년 기념행사 개최

보건복지부는 3월 31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5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이후 제도 시행 5주년을 기념하여 그 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 참여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위한 제도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국민에게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는 제도를 수행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등 종사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국회 최재형 의원, 서영석 의원, 김봉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 남중희 대한요양병원협회장, 정유석 한국의료윤리학회장 등도 참석하여 5주년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서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분야에 공로가 큰 종사자 9명과 공공기관 5개소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제도 정착을 위해 애쓰신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 2명, 국회 웰다잉연구회장상 2명,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상 5명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이외에도, 제도 참여 기관 1천 개소 달성을 기념하여 헌판 수여식을 진행하고 국민 참여 공모전 수상자가 직접 낭독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중단 이행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정구수가 신설, 의료질평가 및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관련 지표 도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유형에 노인복지관 추가 등의 정책을 통해 제도 기반을 넓혀 왔다.

이를 통해 제도 시행 5년 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한 국민은 164만 명,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 이행 건수는 26만 건이 넘어서는 등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내년에 수립 예정인 제2차 연명의료 종합계획(24~28)을 통해 그간의 실적과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추진 방향, 과제별 이행 계획을 마련하여 제도를 추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확산해 온 지난 5년간 힘든 과정을 함께 해 주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의료진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하며,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건전한 확산과 더불어 호스피스·완화의료 등 생애말기 돌봄체계 확충 등의 국가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성지아/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 광명시민과 뜻 함께 하겠다"

광명시 지역 최대 현안인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광명시민과 뜻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30일 광명시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8일 오후 일직동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열린 '경기도-광명시 맞손토크' 참석에 앞서 광명시민들을 만나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 의견을 경청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이전 반대 시민 대표로 김 지사와 만난 이승호 공동위원장과 박철희 집행위원장은 이전 대상 지역주민으로서의 피해와 사업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대대로 평생 살아온 곳에 차량기지 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며, "(구로차량기지 이전 반대는) 경기도의 일이기도 하다. 도시사계서 서울시, 국토부와 논의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김 지사는 "대화를 나눠보겠다"고 화답했다.



박 위원장은 "2005년 서울 구로구 민원으로 일방적으로 시작돼 광명시민 의견 반영 없이 18년 동안 타당성 조사만 3번이나 할 정도로 목적과 명분이 없는 사업이다. 기재부, 국토부 등 중앙정부도 광명시민이 제기하는 부당성에 대해 어떤 설명도 못하고 있다"고 김 지사에게 설명하고 "광명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지리멸렬하게 끌어온 이전사업을 끝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광명시와 시민들의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 운동에 대해 잘 알고 공감하고 있다"며, "광명시민의 뜻과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자리를 함께한 박승원 광명시장도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 운동은 오롯이 주권자인 광명시민 스스로의 의지로 이끌어가고 있다"며, "광명시는 시민의 뜻에 따라 이전을 끝까지 반대하고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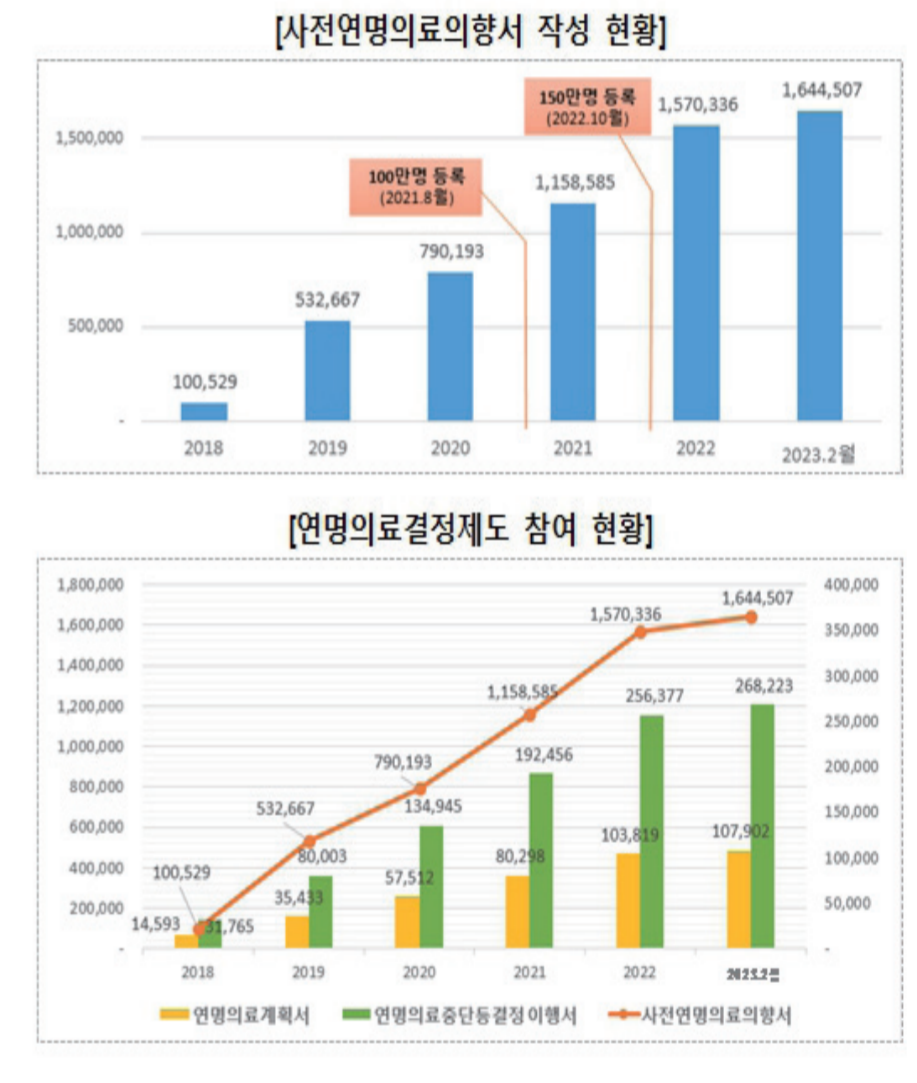
박 시장은 이어 "광명시민 주권이 달린 중대한 현안인 만큼 지사께서 적극 협력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혜영/기자

한편, 광명시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타당성 제조사 결과 발표가 오는 4월로 예정된 가운데 이전 반대 목소리가 광명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명시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전가하는 이전사업의 부당성이 광명시민, 광명시, 광명정치권의 공동 노력으로 지역사회에 점점 선명하게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시에 따르면 이전 반대 릴레이 성명에 동참한 사회단체는 30일 현재 한국어린이총연합회 광명시지회,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광명시광협회, 광명시새마을회, 광명예총, 적십자 광명시지부, 광명시 녹색어머니회, 해병전우회 광명지회, 광명시외식업중앙회, 광명시보건단체협의회 등 15개 단체에 이른다.

광명소상공인연합회,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등 8개 단체도 다음 주 중 반대 성명에 동참할 계획으로 알려져 이전반대 운동의 시민사회 확산은 더욱 가속화 할 전망이다.



울릉군 ULLEUNG-GUN

봄여행, 즐길준비 되셨나요?

울릉도·독도와 함께하는 **봄여행** 안전하고 편안한

천혜의 자연과 민족의 혼이 살아 숨쉬는 울릉도·독도에서 자연이 선사하는 낭만과 즐거움을 느껴세요!!

새희망! 새울릉!

부산시의회,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현장에서 찾는다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모라시장·감전시장 방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대책 논의

부산광역시의회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민생경제 위기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의정활동에 나섰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태한(사상구 1) 민생경제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강달수(사하구 2) 부위원장, 박종율(북구 4), 박진수(비례대표), 양준모(영도구 2), 이승우(기장군 2) 특별위원회 위원과 시장 상인회 관계자 및 부산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이 참석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현장 간담회를 통해 시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부산시의 전통시장 활성화 주요 시책을 공유하는 등 대책 마련을 함께 논의했으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주요 시책을 직접



살펴보고 시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향후 특별위원회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하고 수렴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전통시장 및 민생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관련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태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현

장 방문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침체된 부산민생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종로구의회, 사직·옥인·체부동 현장방문, 해빙기 안전 점검 및 주민 애로사항 청취

종로구의회 이용주 행정문화위원장과 여봉무 의원은 23일, 사직·옥인·체부동 등 지역구 현장 방문을 추진, 해빙기 안전점검 및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장 방문에는 종로구청 미래도시국장, 주택관리과장, 도시개발과장 및 탐장 등 실무진이 동행했다.

해당 지역은 주택 및 생활기반시설이 노후되고 빈 집이 많아 안전에 취약한 곳으로 의원들은 관계 공무원들에게 이 지역에 대한 특별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종로구는 ‘해빙기 안전관리 기간’을 4월 15일까지를 ‘해빙기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각종 시설물을 점검한다.

특히 사직2구역은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주택 지반(4m) 및 옹벽 붕괴 등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다. 옥인동 47번대 일대도 도시가스 배관이 울 초에 설치됐을 만큼 거주환경이 열악하고, 옥인·체부동 일대는 골목길이 좁아 청소 차량도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해결책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주민들은 지역구 의원들이 협력하여 함께 현장을 방문한 모습에 안도감을 표하며,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최광수/기자



전라북도의회 박정규 의원, 산림자원 및 산림경영 제도개선 간담회

국민권익위에 입업인 고충 해결 위해 산림조합과 간담회 제안

전북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은 지난달 30일 서울 산림조합중앙회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산림자원 및 산림경영 제도개선 관련 입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의 제안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국민권익위 전현직 위원장이 진행을 맡았고 황상국 도 산림녹지과장, 최준석 산림조합중앙회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열악한 입업인 근로환경 개선과 산림자원 보호, 산림경영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토론했다.

박정규 의원은 “산림과 입업의 공익적 가치와 국토 보전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한 뒤 “현장 입업인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국민권익위에 간담회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산사태와 산불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사방과 임도 등 산림사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비 단가가 물가 인상과 인건비 상승에 못미쳐 건설 시공과 작업자의 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특히 위험한 벌목과 험준한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위험한 산림사

업의 특성과 산촌 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숙련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일정 교육과 훈련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산림사업에 참여시키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 내용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산림부서 담당 공무원과 입업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제도 개선을 마련하는 등 입업인의 권익향상과 작업자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시흥시의회, ‘제324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참여

경기 시흥시의회가 3월 31일 소래산 등산로 일대에서 열린 ‘제324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에 동참했다.

제324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봄철 산불 예방 및 화재 예방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송미희 의장과 이상훈 의원, 시흥시 시민안전과, 시흥경찰서, 시흥소방서 등 유관기관 40여명이 참석해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최근 건조해진 날씨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등산로에서 안전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며 산불 예방 수칙,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등 화재 예방 및 발생 시 행동요령을 중점적으로 알리는 홍보 활동을 펼쳤다.

송미희 의장은 봄철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산림의 소중함을 강조하



며,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크고 작은 산불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다. 더욱 안전하고 지속가능

한 미래를 위해 나무를 지키고 산을 가꾸는 산불 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우용/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제78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참여



용인특례시의회는 31일 오전 10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근린공원 내에서 열린 제78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윤원균 의장을 비롯해 신민석 경제환경위원장, 김진석, 김영식, 안치용, 박희정, 신현녀, 박병민 의원과 관계부서 직원 등은 식재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나무 400주, 편백 200주, 이팝 50주, 철쭉 1325주를 심는 작업을 했다.

이번 행사는 나무심기의 중요성과 친환경 녹색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저탄소 녹색성장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윤원균 의장은 “한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어 아름다운 자연을 소중히 가꾸는 추억의 시간을 가져보며, 언젠가 내가 심은 나무가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 마음속에도 희망의 나무 한 그루 심어보시는 날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양주시와 정책 교류 시동... 시·군과 협력 폭 확대

곽미숙 대표 등 양주 찾아 “적극적 정책 뒷받침으로 지역 성장에 기여할 것”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31일 ‘경기도 시·군 현장 정책 투어 시즌2’의 두 번째 현장 일정으로 양주시를 찾아 지역 현안 지원책을 모색하는 등 도내 시·군과의 정책 교류 폭을 넓혀가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과 고준호(파주1) 정책위원장, 김민호(양주2) 법제수석, 김성수(하남2) 기획수석, 이영주(양주1)·이상원(고양7) 부대표, 이인애(고양2) 정책위 부위원장 등은 이날 양주시청에서 강수현 양주시장과 금철원 부시장 등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양주시 현안 사업 현황을 청취한 뒤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향에 대한 의견

을 교환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간담회 후 옥정중앙공원 장미공원 조성 현장, 청련사 문화재 관람 환경 등 양주지역 현안 관련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양주시와 지역 현안 사업 해결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도 가졌다.

곽미숙 이날 양주시를 찾은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도내 시·군을 돌면서 현안을 파악하고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양주시의 발전이 곧 경기도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도의회 국민의힘도 정책적인 뒷받침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양주시는 인

구 규모의 지속적인 성장 속에 내실 있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듯 오는 2035년 50만 도시로 성장하도록 도의회 국민의힘이 많은 지원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역별 맞춤형 정책 수요 발굴을 위해 지난 해부터 ‘시·군 현장 정책 투어’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의정부·하남·남양주·오산·포천시와 정책 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지난 27일에는 올해 첫 현장 정책 투어 일정으로 오산시를 다시 찾아 지역 현안 사업 진행 상황을 재차 점검했다.

조혜영/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 섬 인식교육과 언어순화 활성화 당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1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된 안건은 ▲충청남도교육청 섬 인식교육 활성화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언어순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조례안 2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동의안 1건은 수정 가결됐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섬 인식교육 조례를 통해 도내 섬에 대해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 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섬 지역 관광사업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

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더욱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배포해 조례의 효과를 높이고 학교 내 언어순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학교 내 언어순화 활성화 조례를 통해 부서별로 흩어져서 진행되던 관련 사업의 중복성을 점검하고 통일성을 갖추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의회 제출 자료 수치에 오차가 없도록 철저히 하고, 필요한 경우 추

가 설명 문구를 넣어 이해하기 쉽게 해달라”며 “공유재산 매각은 초기 단계부터 의회와의 업무 협의로 현장방문 및 검토 등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학교 시설 시 개교 일정에 차질 없도록 우선순위를 잘 설정해 신속히 지원해달라”며 “제출 자료 수치 등에 대한 정확성을 꼼꼼히 확인해 의정활동에 혼선이 없도록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신순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천안부대초 교사동·급식실 증축의 차질 없는 진행으로 반복된 급식실 혼잡 문제가 해소되길 바란다”며 “주



포 학생야영장 주민민원 또한 잘 해결해 야영장 설립·운영에 문제없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교육위원회 소관 안전에 대한 신중한 심의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를 위한 충남교육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정근/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박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경치부:내선(112)	문화부:내선(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내선(113)	부동산부:내선(117)
	경제부:내선(114)	오피니언부:내선(118)
	스포츠부:내선(115)	지방부:내선(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경식 남원시장, 숙원사업 착착해결

- 서남대 폐교부지 활용 전북대 남원캠퍼스 및 남원발전연구원 건립 MOU 체결
- 18년째 도심 흉물 효산콘도 매각예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 매각결정
- 남원문화원 주관 3년 만에 새로운 영정 제작 및 국민 모금운동 전개
- 주민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3년 만에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 선정
-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공모사업(96.6억원), 드론 실증도시 공모사업(14억원) 선정

최경식 남원시장이 민선8기 취임 9개월 만에 남원시 각종 숙원사업과 현안들을 착실히 해결해 나가고 있다.

서남대 폐교부지 활용 전북대 남원캠퍼스 및 남원발전연구원 건립 MOU 체결

서남대 폐교부지 활용 전북대 남원캠퍼스 및 남원발전연구소 건립사업이 대표적이다. 2018년 2월 28일에 서남대가 폐교되고 청산 절차 이행 등이 지지부진했다. 지난 5년간 서남대 폐교로 인해 2,000여명의 청년들이 사라지고 지역상권이 무너지는 아픔을 남원시민들은 감내해야 했다.

3월 30일 '전북대 남원캠퍼스 설치 및 남원발전연구원 설립을 위한 전북대학교·남원시·남원시의회·지역 국회의원 등 공동협력 업무협약식'을 체결하면서 민선 8기 이내에 설립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8년째 도심 흉물 효산콘도 매각예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 매각결정

18년째 도심 흉물로 방치된 효산콘도에 대해 전략적인 투자조건 제시로 3월 6일 재 매각결정되었으며, 낙찰금액은 35억 1,700만원으로 작년 11월 21일에 매각결정된 27억 3,800만원보다 약 8억원 높게 낙찰

되는 성과를 이뤘다.

이번 공매는 연초에 낙찰 취소 후 신속한 재공매로 4개 업체가 참여하여 매각예정가 25억 6,320만원보다 137.2% 높은 가격으로 낙찰됐다. 낙찰업체는 광주소재 건설업 법인으로 입찰보증금 2억 5,632만원을 제외한 잔금을 4월 17일까지 납부하면 매수가 완료되고, 이후 폐건물로 방치된 효산콘도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원문화원 주관 3년 만에 새로운 영정 제작 및 국민 모금운동 전개

2020년 친일잔재 청산 일환으로 철거됐던 춘향영정이 3년 만에 새로운 영정으로 제작되어 오는 제93회 춘향제에는 새로운 춘향영정을 모시고 춘향제향을 거행할 계획이다. 최초 영정과 새로운 영정 제작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논란으로 최시장은 취임 이후 남원문화원에 향후 방향을 정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남원문화원은 학계, 예술계 등 전문가를 포함한 '춘향영정 봉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월 동양화가 김현철 작가를 새 영정 제작작가로 선정하고 남원시민뿐만 아니라 국민적 정서를 담아내기 위해 새로운 춘향영정 제작을 위한 국민 모금 운동을 5월 20일까지 진행한

주민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3년 만에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 선정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확보가 시급한 가운데 지난 2월 24일 대산면 대곡리를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 최적지로 선정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앞서 2021년부터 4차례에 걸쳐 소각시설 입지 공모를 신청했지만 신청지역이 전무했다. 최시장은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신규 소각장 설치사업의 첫 단계이자 가장 어려운 단계인 후보지를 선정하는 성과를 이끌어내고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예산확보를 위해 발로 뛰고 있다.

각종 공모사업 선정

3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3년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공모사업'에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참여, 최종 선정되어 96.6억원을 투입해 소프트웨어 교육기회가 부족한 지역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3월 17일 국토교통부 주관 '드론 실증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4억원을 확보해 드론스포트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2023 남원 FAI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대회', LX 드론활용센터, 항공안전기술원 유치,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UAM·드론 홍보전시관 조성, 드론 레저 스포츠 스타디움 건립 등 UAM·드론 항공산업 혁신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현장에서 시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대안을 찾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 자세이다"며 "민선8기 남원시정이 정부 및 전라북도의 정책 기조에 맞춰 남원의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시흥시, 관내 대학과 상생·협력 꾀할 '대학생 소통간담회' 눈길

시흥시는 시흥시의회와 함께 대학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28일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대학생 소통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춘호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한국공학대학교 대학생 17명 및 학교 관계자와 시흥시 미래전략담당관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시흥시 대학협력사업의 추진 현황과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관해 자유로운 논의를 펼쳤다.

대학협력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흥시 대학협력 조례 제정에 앞서 마련된 이번 소통의 장에서는 지역 대학생들의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역과 대학의 상생·협력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학생들은 대학협력사업 발전 방안, 취업 연계 사업 등 진로 문제와 관련된 사항과 지역정주여건 개선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박춘호 위원장은 "시흥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주역이자, 지역 혁신 주체인 대학생들의 시선에서 본 시흥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성사돼 매우 기쁘다"며, "학생들의 의견을 검토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의원은 "우리 시 최연소 의원으로서 학생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젊은 인재들이 졸업 후에도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지역 내 취업,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경제, 문화, 주거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현중 한국공학대학교 총학생회장은 "그간 총학생회와 시, 시의회와의 직접적인 만남이 없었는데 이런 자리가 마련돼 기쁘다"면서, "앞으로 총학생회장으로서 시와 대학생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오늘의 소통을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흥시 대학협력사업을 총괄 추진하는 미래전략담당관은 "지역 내 대학의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대학생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지역현안(거북섬 및 은계호수공원 상권 활성화 등)에 관심을 갖고 더욱 활발하게 시정에 참여하길 바란다"며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을 위해 발맞춰 나가는 협력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정명근 화성시장 '자살예방 핫라인'을 비롯, 고위험군 종합지원방안 논의

화성시가 31일 동탄출장소에서 '자살고위험군 2차 지역개여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해 7월 기초지자체로는 최초로 '자살예방 상담 핫라인'을 도입한 시가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사례 중 복합 문제를 가진 사례자를 주제로 유관기관과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나선 것이다.

이번 회의에는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화성서부보건소, 동탄8동, 동탄어울림사회복지관, 화성시가속센터, 화성시자살예방센터 등 5개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사례자의 상황에 맞춰 심리적 지지와 더불어 자녀 양육에 필요한 자원 및 재정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명근 시장은 "1호 결재로 자살예방 핫라인을 개설할 만큼 자살 없는 생



명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금일 발생한 기안동 사건을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향후 자살예방 핫라인 홍보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울감 또는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이가 있을 경우 화성시 자살예방 핫라인,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상담전화로 전화하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양시현/기자

여주시, '벚꽃 터널'에서 '진달래 꽃길'로 이어진 여강길을 걷는다

봄꽃의 개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진해 벚꽃 축제'를 올해도 뉴스로 접한 이들, 서울 여의도 율종로에 물려든 벚꽃 관람 인파를 떠올리며 지레 질리는 이들을 위해 가까운 남한강변의 벚꽃놀이 명소를 추천한다.

낮설게 들리겠지만 '여주 흥천 남한강 벚꽃축제'는 올해로 벌써 7회째다.

코로나19라는 악재에도 '드라이빙 관람'이라는 묘책을 쓰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새 역사를 창조해 가고 있는 여주시의 대표적인 관광 축제다.

4월에 들어서면 모듬지기 333번 지방도 벚꽃 20길(귀백리 산7번지) 1.2km 도로변에 벚꽃이 만개해 벚꽃 터널을 이룰 것이다.

4월 7일에 열리는 개막 축하 공연이나 점등식 같은 행사도 불거리지만, 여유롭고 한적한 시간에 강변을 바라보며 흐드러지게 핀 벚꽃 길을 느릿느릿 산보하는 여유야말로 '여주 흥천 남한강 벚꽃축제'만이 주는 최고의 매력이다.

벚꽃 보고 즐기는 상백리 '민물 매운탕', 2017년 첫 축제에 10만 인파를 몰고 온 저력이 있는 만큼 손님맞이 행사를 준비하는 흥천면 지역 주민들의 열의와 애환에서 고향의 인심을 느껴보는 것도 적잖은 기쁨을 줄 것이다. 올해도 흥천면 새마을 부녀회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이 참여해 여주에서 난 쌀과 채소로 만든 먹거리와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한다. 벌써 봄날에 잃은 입맛을 유혹한다.

좀 더 특별한 음식을 찾는 이라면 '현진인 맛집'으로 알려진 상백 매운탕집에서 쏘가리와 빠가사리, 잡고기를 넣어 끓인 일명 '삼탕'을 추천한다.

강에서 통발로 잡은 민물고기 요리는 오랜 시절 허기진 배를 채워주던 단백질원이자 강이 준 추억의 음식이었다.

축제의 주 무대인 지금의 상백리는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인데다 노령층이 다수인 마을임에도 천혜의 자연경관인 강변과 옛 고유의 풍습을 가꾸고 되살려 마을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단결된 힘을 보여 여러 기관으로부터 최우수마을로 선정되기도 했다.

찬우물나무-여주보-영릉을 잇는 여강길 6코스, 상백2리 마을회관은 여강길 6코스(왕터쌀길)의 종착지이자 출발지다. '왕터쌀길'은 상백리 마을회관에서 여주보를 지나 세종대왕 능인 영릉이 있는 세종대왕역사문화관까지의 구간을 이른다.

이름에서 짐작하듯 이 지역은 양화천과 북한천이 남한강으로 흘러 들어오며 만들어 낸 충적평야로 여주에서도 이름난 벼농사 지역이다.

이곳에서 생산되던 자체쌀은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에 진상될 만큼 미질이 좋았다.

양화교를 건너면 강 건너편인 대신면과 이어주던 양화나무가 있던 곳이다. 이 나무에서 배를 타고 남한강 좌우를 건너다니며 비옥한 땅에서 키운 파, 조, 수수 같은 농작물을 내다 팔았다.

어느새 푸릇해진 강변의 이팝나무

와 버드나무를 올려다보거나 강 건너 탁 트인 시야로 멀리 삼각산처럼 우뚝 솟은 추암산의 위엄은 압권이다.

산길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경관이다. 여주보가 만들어 낸 호수 같은 남한강을 발밑에 두고 걷다 보면 옛 여주팔경으로 꼽던 '입암'을 만난다. '갯가 바위'라는 뜻답게 오랜 세월 겹겹이 쌓인 지층으로 시간의 축살을 엿볼 수 있는 자연경관 유적이다.

양심을 바라보며 조금 더 발걸음을 재촉하면 세종산림욕장이 나온다.

여기까지는 자전거길과 공유한다. 자전거길을 버리고 우측으로 500미터쯤 더 걸으면 영릉 입구에 있는 세종대왕역사문화관에 도착한다.

사진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여강길을 주제로 한 자연과 사람, 역사와 문화를 담은 사진을 찍어 제1회 삶이 흐르는 여강길 사진공모전에 응모해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를 줄 것이다.

영릉 '진달래 숲길'에서 얻는 감동과 휴식, 드디어 마지막 순례지인 영릉이다. 흥천면 벚꽃 축제 기간에 세종대왕릉을 찾는 관광객들은 '진달래 숲길'을 걸을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종대왕유적관리소에서는 4월 1일 토요일부터 9일 일요일까지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세종대왕릉 홍살문 좌측 능선(3ha)을 개방한다. 수줍은 듯 숨어서 피는 진달래가 군락을 이루면 얼마나 큰 감동의 울림을 주는지 울봄에는 놓치지 마시길 바란다.

이성윌/기자

[용인특례시]양지면 3월 월례회의 및 시민소통실 주민불편해소 자리마련

처인구 양지면(면장 손성철)은 지난 28일 양지면 행정복지센터에서 43개리 마을 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3월 월례회의 및 이장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회의에 앞서 30분전 소회의실에서 시민소통담당관 등 팀장 및 담당주무관이 참석하여 양지면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접수를 받아 토론을 진행하였다.

주요한 민원으로 첫째 정수리와 제일리 마을버스 운영을 원활하게 운영 조정해달라는 요청 및 이성지 옆 도로확장공사와 폐쇄사에 대한 현재 진행 사항, 둘째 생활쓰레기 양체 투기 주민들이 있어 CCTV 확산 요청 및 소방도로설치, 셋째 양지초 스쿨존 신호등을 야간과 주말엔 통행량 증가로 골목길이 마비되니 효율적으로 탈력있게 조정해 줄 것 요구한 10여명의 주민이 참석하여 제기를 하였다.

참석한 시 시민소통담당관은 "마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신 이장님들께 감사드리고 이번 민원들은 꼼꼼히 시장님에게 보고하여 시정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진행된 이장월례회의에는 지난해 6년동안 양지면이장협의회장에게 금 3돈을 답례품으로 주었다. 회의에서는 용인시 통.리장 연합



회주관으로 2023년 한마을 체육대회를 4월7일 기흥구 언남동 실내체육관에 주최하기로 하였으며, 4월11일에는 문예회관 처인홀에서 "2023년 민방위대장(이장)교육, 훈련"과 2023년 처인구민 대상 나무나누어 주기행사 (대추나무, 사과나무) 및 동산 중개보수 감면사업, 2023년 모바일 앱을 활용한 걷기 프로그램 운영, 노선버스 운행상황 변경 알림, 취약계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냉방-에어콘)신청 안내, 청소년부도 아동교육비 신청안내, 2023년 폐농약 집중 수거 기간 운영안내 등이다.

양지면 손성철면장은 인사말을 통해 "산불조심 기간인 만큼 논두렁,밭두렁,생활쓰레기 소각하지 않도록 마을 주민께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또한 이상석 양지면 이장협의회장은 "바쁘신데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을 주민을 위해 앞장서고 계신 43개리 이장님들은 "깨끗하고 밝은 양지면을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서주시는 이장님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해 이장님과 임기동안 열심히 하겠다"며 인사말을 했다.

조혜영 기자 ab153715@naver.com

Goyang

2023

International Horticulture Goyang Korea

고양국제꽃박람회

일산호수공원 Ilsan Lake Park

2023.4.27-5.8

생활 속의 꽃
Flower in the Life

고양국제꽃박람회
Goyang International Flower Foundation

이동환 고양시장 “고양-양재 지하고속도로, 이산포IC까지”

31일 탄현2동 ‘주민과의 대화’ 진행, 고양시 핵심 정책 및 현안 소통



이동환 고양시장은 31일 탄현2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고양-양재 지하고속도로 노선을 현천IC에서 이산포IC까지 연장해 자유로와 연결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동환 시장은 31일 탄현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열고 “1기 신도시 조성 당시 계획된 광역교통으로는 지금의 인구를 수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획기적인 교통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고양-양재 고속도로 사업이 민자적격심사에 통과됐지만, 현재까지 검토된 노선은 양재부터 현천IC까지”라며 “이 노선이 자유로 지하고속도로까지 연장될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토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반드시 자유로에 지하도로가 풀리게 하고, 시민들의 출퇴근이 원활해지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에 앞서 “시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가 바로 교통이고, 공약(70개) 중 교통 관련 공약이 38%(17개)나 될 정도이지만, 광역교통 결정권은 중앙부처가 모두 갖고 있어 참 어렵고도 험난한 길”이라고 토로했다.

고양시는 현재 신분당선과 9호선 연장, 3호선-경의중앙선 급행 및 증차를 비롯해 GTX-A노선과 대곡소사선, 고양-은평선, 인천2호선 연장 등을 추진 중이다. 이 시장은 이에 광역교통 확충을 위해 투-트랙 전략을 쓰겠다는 방침이다. 이 시장은 즉 “광역교통이 꼭 확충되어야 하는 확실한 논리를 만들고, 시민·전문가·학회 등과 힘을 모아 국토교통부, 정치권과의 협상도 확대해 고양시에 부족한 교통망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후보 시절부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자족도시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었다”며 “지난해 11월 경기북부 최초로 호부지로 선정된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은 고양시의 구조와 체질을 전환시켜 기업도시, 경제도시, 일자리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년 4월 경제자유구역으로 JDS지구에 800여만평이 지정되면 지능형 이동수단(스마트 모빌리티), 드론, 바이오, 문화, 전시복합산업(마이스), 반도체 등 미래 혁신기술이 고양시로 집약되고 첨단 글로벌 혁신지구(클러스터)와 산업 생태계가 조성된다”면서 “직주근접을 갖추면 자연스레 출퇴근 교통문제까지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건의해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탄현을 비롯해 화정, 행신, 중산 등 향후 노후 택지지구도 적용하도록 했다”면서 “안전진단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으로 특색 있는 맞춤형 재건축을 진행하고 주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재건축 사업 시, 아파트만 짓지 말고 자족시설을 확충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겠다”면서 “서울 테헤란처럼 주업역 등 역세권 주변에 복합개발을 통해 기업들이 들어서는 빌딩숲을 만들고 싶다”고 피력했다.

국가통합혁신사업으로 선정된 창릉천 정비, 백석 신청사 및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등도 공유했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해 진행된 소통간담회에서 나온 탄현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 시 문화체육시설 설치와 경의로 한빛지하차도~앵골과선교 부근 도로정비, 신분당선 연장 요구 등에 대한 검토사항을 전달하고, 장애인 택시 운행 개선과 주민지원 시설 확충 등 새로운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한영기기자

염태영 경제부지사, 경기동부권 기업인과의 2회 ‘기발한’ 기업 현장맞손토크



기업 건의 사항 등 현장 의견 청취, 기업으로 해결방안 모색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31일 오후 광주시에 있는 기업 주성엔지니어링에서 두 번째 ‘기발한 기업현장맞손토크’를 열고 경기 동부권 소재 기업인들과 소통했다.

‘기발한’이란 ‘기업과 기회가 발전한다’라는 의미로, 경기도가 직접 기업 현장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맞손토크를 마련했다.

광주·하남·이천·양평·여주·남양주·구리 등 동부권역 기업체 관계자를 비롯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관계기관, 시군 관계자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다.

맞손토크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한 기업인은 “가구 기업 등 영세한 중소기업은 탄소중립, 스마트공장 등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경영 위기 상황에서 시설개선에 막대한 자금을 선뜻 투자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노태중 특화기업지원과장은 “도의 가구분야 육성을 위한 ‘제조공정 고도화’ 사업 등 스마트 가구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내년 신규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또 다른 기업인의 “수도권정비계

획법으로 인해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 용지(산업단지)를 6만㎡에서 30㎡ 이하까지 조성 가능토록 시행령을 개정해달라”는 건의에 류호국 지역정책과장은 “경기도는 해당 문제점과 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자연보전 권역 시군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과 중앙건의를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밖에 참석 기업인들은 ▲직식산업센터 내 입주 허용 업종 확대와 거주 제한요건 삭제 ▲지자체 산업단지 조성 재정 보조 지원 요청 ▲정책자금 융자 기간 장기지원 확대 건의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시 전일

신고 대체 등을 건의했다.

염태영 부지사는 “경기동부는 발달 특색지역, 자연보전 권역 지역 등 낙후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중첩이 성장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라며 “기업인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개선과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통해 더 큰 기회, 더 성장할 기회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3월 7일 북부권역 기업인과의 맞손토크를 시작으로 권역별 ‘기발한 기업 현장 맞손토크’를 추진 중이며,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조혜영기자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창의역량교육 실천학교 229교 운영, 인공지능(AI) 융합교육과 디지털 역량 강화에 주력

교육과정, 수업실천, 교원역량, 성과확산의 4대 운영 과제 실행

경기도교육청이 교과와 연계한 인공지능(AI) 융합교육 확산을 위해 디지털 창의역량교육 실천학교 229교를 운영한다.

디지털 창의역량교육 실천학교는 모든 교과와 연계해 AI 융합교육과 디지털 활용 수업을 실천하는 학교다. 디지털 기술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 경제적 혁신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창의 역량 함양을 목표로 한다.

실천학교에서는 정보, 과학, 수학, 인문?사회, 예술?체육 등 다양한 교과와 연계해 AI 원리를 배우고, 디지털 환경과 AI 활용 수업으로 디지털 소양을 키우는 교육 운영에 주력한다.

주요 운영 과제는 ▲(교육과정) AI 원리를 다양한 교과와 연계하는 인공지능 융합교육 ▲(수업실천) 교과 교육과정 내 디지털 소양 교육을 위한 AI?디지털 활용 수업 ▲(교원역량) 교원의 AI?디지털 수업역량 강화 연수 참여와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성과확산) 관내?외 학교 대상 수업 공개와 성과나눔회 개최로 우수 사례를 공유해 디지털 창의역량교육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조영민 미래교육담당관은 “디지털 창의역량교육 실천학교 운영으로 모든 교과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미래 디지털 시민으로서 인성과 주도성을 키울 수 있도록 디지털 창의역량교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실천학교 외에도 인공지능 교육 확산 노력을 다양하게 기울이고 있다.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 250교, 인공지능 융합교육 중심고등학교 10교 운

영으로 인공지능 교육 확산 노력을 다양하게 기울이고 있다.

조혜영기자



안성 문화도시 추진단 공식 출범

대한민국(K) 문화도시 추진의지 선포

중앙정부 대규모 국책사업 ‘대한민국(K)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제도 전장을 낸 경기 안성시는 29일 ‘안성 문화도시 추진단’ 발대식과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지난 2021년 9월 처음 출사표를 던진 이후 1년 반 동안의 안성시민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자리였다. 안성시는 2021년부터 2년째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했지만, 다른 지자체와 달리 문화재단이 없고 지자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속한 문화도시센터 공무원 2~3명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추진을 위한 행정조직체계를 주요 미흡사항으로 지적받은 바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기획한 11개의 프로젝트 분임으로 구성된 문화도시추진단에 주요 관련 행정부서를 매칭시키고 시의회가 지원하는 구조로 200여명의 시민과 공무원, 시의회가 함께하는 독보적인 추진조직이 만들어졌다.

추진단장으로는 안성에 정착하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행복전도사’ 방송인 정덕희 마인드힐링센터 품 대표와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안정열 시의원 의장,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보라 시장 3명이 공동단장을 맡았다.

행정대표로 공동단장을 맡은 김보라 시장은 “안성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여러 노력을 기울였지만 요즘 기



업들은 많았지만 싸다고 내려오지 않고, 젊고 창조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간다”며 “젊은 사람들이 살게 하는 힘이 바로 문화가 가진 힘이고 그래서 안성이 문화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대표로 공동단장을 맡은 정덕

희 대표는 “안성에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역사문화자원과 곳곳에 숨어있는 문화예술인이 많다”며 “이런 자원들을 잘 엮어내면 수도권 사람들이 돈을 쓰러 오는 문화도시가 될 수 있다”며 추진의지를 선포했다.

조혜영기자

화성시 ‘수향미’, 미국 수출 시작

30일, 수향미 총 19톤 수출...한인마트 통해 미국 시장 공급



화성시 대표 명품쌀 ‘수향미’가 30일 미국 수출길에 올랐다.

농협회사법인(유)화성RPC는 2022년 산 수향미 10kg, 총 19톤을 수출했다. 지난 2017년 화성시가 지역특화품종으로 수향미 육성을 시작 한 이래 민간RPC에서 첫 해외 수출에 성공한 것이다.

수향미는 밥을 지을 때 나는 은은한 화성향과 쫄쫄한 찰기가 특징으로 화성시가 지난 2021년부터 전용실시권을 취득해 재배 및 판매를 독점하

면서 명실상부 화성쌀로 자리매김했다.

이번에 수출된 수향미는 한인 마트를 통해 미국 시장에 유통되며, 현지 반응을 보고 수출 물량을 늘려갈 계획이다.

김민규 농식품유통과장은 “해외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진 명품쌀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앞으로 수향미 수출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오산시, ‘예술이 흠날리는 벚꽃 It Day in 오산천’특별기획 공연

예술이 흠날리는 벚꽃 It Day in 오산천

2023. 4. 2.(일) 오산천(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뒤편) 뽕오산문화스포츠센터

1부 : 오후3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산첼리앙상블(전자첼로) - 열씨구(국악) - 더탑아카데미(댄스) - KOMA컴퍼니(뮤지컬갈라쇼) 	2부 : 저녁7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산민요보존회(민요) - 독산성색소폰앙상블(색소폰) - 스트릿키드(합창) - DS뮤지컬예술단(남성중창단)
--	--

오산시는 4월 2일 오후 3시와 저녁 7시 오산천(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뒤편)에서 벚꽃과 예술이 어우러진 특별기획 공연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오후 3시와 저녁 7시에 1부와 2부로 나누어 열리는데 모두 4팀씩 총 8팀이 참가하여 풍성한 볼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1부 공연은 오산첼리앙상블의 전자 첼로, 열씨구의 국악, 더탑아카데미의 댄스, KOMA컴퍼니의 뮤지컬 갈라쇼가 준비되어 있으며, 2부 공연은 오산민요보존회의 민요, 독산성색소폰앙상

블의 색소폰 앙상블, 스트릿 키드의 합창, DS뮤지컬예술단의 남성 중창이 무대를 채울 예정이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주말을 맞이하여 오산천을 찾는 이들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오산시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오산시는 복합문화도시 조성의 목적으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예술 단체에게 무대를 제공하는 등 지역 예술 육성 및 지원에 힘쓰고 있다.

양시현기자

경남도, 조선산업 초격차 유지 위해 스마트조선센터 구축

조선업 생산공정 스마트화(자동화·연결화·지능화) 통해 인력난 극복

경남도가 도내 조선소 인력난 해소와 조선산업 초격차 유지를 위해 거제시, 중소조선연구원과 함께 ‘중소조선 생산기술 혁신(DX)센터’를 구축한다.

도내 조선업은 생산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조선산업의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업 생산공정 스마트화(자동화, 연결화, 지능화 등)를 통한 생산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도는 거제시, 중소조선연구원과 함께 2년간 기획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참여해 국비 100억 원을 포함, 총 250억 원을 들여 2027년까지 거제시 장목면 일대(6,500㎡)에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 혁신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제시는 국내 최대 조선업 생산시설 집적지로서 대우조선해양 및 삼성중공업에 비해 25개 블록제조와 1,300여개 기자재업체 등 총 3만 5,000여 명의 종사자가 산업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어, 생산기술혁신센터 구축 최적지로 볼 수 있다.

도는 이번 중소형 생산기술혁신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디지털기반 스마트조선 기술지원센터 건립(4층 규모), 생산자동화 및 디지털전환 테스트베드 구축, 성능평가 장비 구축(15종) 등으로 도내 스마트조선 생태계 구축과 조선업 생산혁신을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도내 센터구축에 따른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중소조선스마트생산 혁신지원사업’과 ‘스마트야드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연계하여 스마트조선 보급확대와 스마트조선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선박 건조 설계, 조립, 의장, 도장, 탑재에 이르는 전 주기 생산공정별 기술개발을 위해 산업부 조선분야 연구개발(R&D) 공모사업도 적극 유치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대형조선-협력사 통합 스마트야드 가치사슬(밸류체인)이 구축되어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산업재해 예방과 조선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신호 경남도 전략산업과장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조선업 인력난 해



소를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조선산업 생태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사업을 통해 조선사와 협력사의 스마트야드 가치사슬이 구축되면 생산원가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 조선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선8기 박완수 도정에서는

취임 후, 조선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RG발급 완화 건의뿐만 아니라 조선소 인력수급 제도개선도 여러 차례 건의하여 제도개선(정책금융 지원, 외국인력터 확대, 비자발급 요건 완화, 비자처리기간 단축 등)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장재현기자

영천시,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북안면 명주리,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계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농어촌)’ 공모에 영천시 북안면 명주리가 최종 선정됐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농촌과 도시의 낙후된 마을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 등을 통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대상지로 선정된 북안면 명주리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6% 이상이며, 30년 이상의 주택이 77%, 슬레이트 주택이 42%가 넘는 등 노후화된 주거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경주와 인접한 지리적 위치로 2016년 경주 지진으로 담장이 무너져

가는 등 지진 피해가 고스란히 누적되어 방치돼 있다.

영천시는 4년 동안 국·도비 9억 7천만 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13억 원으로 슬레이트 지붕 개량과 집수리를 포함한 주택 정비와 재래식 화장실 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생활·위생 인프라를 확충했다. 또한 앞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학교, 동네목수 양성, 주민안전교육 등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앞으로도 낙후되고 소외된 마을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보고, 모든 시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반식기자



통영시, 3년 연속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정성지표 우수사례 2021년 3위에 이어 2년간(2022~2023) 2위 연속 달성

통영시는 지난 3월 30일 2023년(22년 실적) 경상남도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과 함께 특별조정교부금 1억2천9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는 경남도가 매년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120개 지표에 대해 정량평가, 정성평가, 도민평가 등 3개 부문으로 평가해오고 있으며, 평가자는 합동평가단(지표담당부서 및 외부전문가 237명)과 도민평가단(36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외부위원의 평가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 평가지표(120개) - 정부합동평가 87개, 도 역점시책 33개(정량지표 92개, 정성지표 28개)이었던 평가에서 통영시는 정성평가 부문 시부 2위 선정과 함께 도민평가 부문에서 축제와



연계한 관광마케팅 사례인 ‘통영에 온다, 통영애 ON 나’가 도민공감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특히, 도민평가는 정성지표 중 우수 생활밀착형 지표를 도민이 직접 참여

해 선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며, 지난해에도 통영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우수사례로 최다 득표하기도 했다.

정성지표 우수사례로는 ‘함께 만드

는 100% 깨끗한 보조금, 해상사고 주범 해무! CCTV로 잡아낸다, 어디서나 책 읽는 즐거움이 있는 통영, 어려운 공공언어 우리 손으로 바꿔요, 씩(SSG) 배송보다 편한 스마트 전동시장 장피랑’ 등이 있다.

그동안 통영시는 지표에 대한 주기적인 성과향상 대책보고회 개최 및 정성평가 1:1 컨설팅 실시 등 우수사례 발굴과 함께 실적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지난해 7월 민선 8기가 본격 시작되면서 시정 혁신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었던 노력들이 올해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더욱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용준기자

청송군, 생생한 지역 소식 군민이 직접 알린다!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청송군 SNS 군민참여단’ 운영

청송군은 4월부터 군민이라면 누구나 군 공식 SNS 게시자로 참여할 수 있는 ‘청송군 SNS 군민참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송군 SNS 군민참여단’은 군민이 직접 제출한 원고를 군 공식 SNS 게시물로 채택하여 지역 주민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고 군민과의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군 공식 SNS에 참여를 원하는 군민은 군정에 관련된 원고를 작성해 제출하고, 청송군은 내용, 품질, 시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택한 원고를 군 공식 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정책, 관광, 축제, 생활정보 등 군정 홍보에 관한 내용만 가능하며, 그 밖의 일반 관광지, 카페, 음식점 등 군정 홍보와 관련 없는 원고는 제외할 방침이다.

채택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으며, 우수 참여자에

대해서는 차기 ‘청송군 SNS 홍보단 온통청송’ 지원 시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 상호 공감대를 확대할 ‘청송군 SNS 군민참여단’은 소통 행정의 장이 될 것”이라며, “청송군민의 SNS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만들어진 만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엑스포 드림원정대, 국민 염원 신고 광화에서 빛났다!

부산시, 엑스포 드림원정대, 국민 염원 신고 광화에서 빛났다!

전 국민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염원을 신고 달리는 엑스포 드림원정대가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를 계기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유치기원 행사 ‘광화에서 빛:나이다’에서 독특한 역할을 했다.

부산시가 마련한 엑스포 드림원정대는 지난 29일 출정식을 가지고, 전 국민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염원을 담은 전국 투어를 시작했다.

지난 29일에는 대구를 찾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대구시민에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필요성을 알리고 이들의 뜨거운 지지와 응원을 받았으며, 어제(30일)는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되는 ‘광화에서 빛:나이다’ 행사를 찾았다.

‘광화에서 빛:나이다’는 세계 3대 메가이벤트인 세계박람회를 2030년 부산으로 유치하기 위한 중요 과정인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를 앞두고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주최로 지난 30일을 포함해 4월 3일까지 열린다.

민간 유치위(삼성, 현대기아차, SK, LG 등)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최고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2030부산세계박람회와 관련한 전시와 이벤트가 진행되며, 행사장소인 광화문광장도 전체가 2030부산세계박람회 빛 조형물, 미디어아트 등으로 꾸며졌다.



엑스포 드림원정대의 이번 행사 참여는 이날 행사의 출발을 더욱 빛내고, 대한민국의 유치 열기를 한층 고조시키기 위해서다.

엑스포 드림원정대는 가수 이무진 이 참여한 엑스포 응원송 ‘웰컴 투 엑스포(Welcome to Expo)’가 온라인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광화문 광장에서 이를 활용한 플래시몹 행사를 진행하고 유치 염원을 부착할 수 있는 위시트리를 설치하면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향한 국민들의 응원 열기에 불을 지폈다.

또, 관광진흥과의 협업을 통해 엑스포 드림원정대가 사용하는 홍보 트

력 앞을 아름다운 부산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동시에 제공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유치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방문했으며,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도 현장을 찾았다. 안병윤 부시장은 이날 주요 내빈과 함께 행사 시작을 알리는 점등식 퍼포먼스에 참여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여줬다.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국제박람회기구 현지실사단이 방문하는

중요한 시기에, 엑스포 드림원정대가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향한 대한민국의 유치 열망에 불을 지피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며, “우리는 부산으로 내려올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단을 맞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개최지가 결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엑스포 드림원정대는 광화문에서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치고 순천, 광주, 대전을 거쳐 4월 3일 다시 광화문 광장을 찾아 전 국민의 유치 열망을 전한 다음, 부산으로 내려와 6일까지 일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송종진기자

예천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 개최...추가 선정으로 차별화



예천군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 특성을 살린 기부제 답례품을 추가로 결정하기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인 이재길 재무과장을 비롯한 당연직 위원 2명과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를 통해 꾸러미 세트, 젤리, 벌초 대행 서비스 할인권, 원목 도마를 답례 품목으로 추가했으며 4월에 공모업체 선정을 마무리하고 5월 중으로 기부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꾸러미 세트는 예천에서 자란 싱싱한 제철 농·특산품이나 돼지고기, 건나물, 견과류 등으로 구성되며 젤

리와 원목 도마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돼 답례품으로 선정됐다.

특히, 벌초 대행 서비스의 경우 추석 한 달 전부터 추석 하루 전까지 운영해 시간적 여유가 없어 고향인 예천을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기부자들을 위한 계절 답례품으로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할인권의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고 예천군을 사랑하고 아끼는 수많은 기부자들의 따뜻한 손길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기부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고품질의 다양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재경영주시향우회 회장 취임식 및 임시총회 개최

송호준 부시장 “영주 발전에 지원을 다하고 있는 향우회에 감사” 전해



재경영주시향우회 박태규 신임회장 취임식 및 임시총회가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송호준 영주시 부시장, 박형수 국회의원, 심재연 영주시의회 의장, 양재원 대구경북시도민회회장을 비롯한 각 학교 동문회 회장과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취임사 ▲축사 ▲감사패전달 ▲안전의결 ▲케익절단 ▲폐회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그동안 재경영주시향우회 발전을 이끌었던 제33대 박찬홍 재경영주시향우회 회장의 뒤를 이어 박태규 회장이 제34대 재경영주시향우회 신임회장으로 취임했다.

윤근수/기자

한편, 영주시정 발전과 재경영주시향우회 발전에 공이 큰 박찬홍 전 임회장과 손진영 전임 사무총장에게 공로패가 전달됐다. 박태규 신임회장은 “재경영주시향우회 고문과 선배님들을 비롯한 향우회원이 담아놓은 자리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할 것을 말씀드리며 일취월장하는 모습으로 재경영주시향우회는 물론 고향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송호준 부시장은 “영주의 발전과 밝은 미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재경영주시향우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재경영주시향우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에스테크, 경북 구미에 신규투자

- 구미 하이테크밸리에 리튬 가공 공장 건설 투자양해각서 체결
- 경남 사천 본사, 첨단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새로운 터전 마련
- 이철우 도지사, “경북 중심의 새로운 지방의 기적 이루겠다”는 의지

경북도와 구미시는 지난달 31일, 도청 미래창고에서 이철우 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김민강 제이에스테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차전기 핵심소재(리튬) 가공 공장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신규 투자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 협약으로 제이에스테크는 구미 하이테크밸리(구미 국가 산업단지 제5단지)에 올해 12월까지 양극재 주요 활물질인 리튬가공 생산공장을 6988㎡ 규모로 건축할 예정이다.

제이에스테크는 2001년 9월 설립, 수탁 분쇄가공 및 신소재 개발 제조를 하는 기업으로 경남 사천시 사남면에 본사가 있으며, 전국 최초로 본격적인 분쇄가공 최첨단 기술을 사용해 신소재 개발, 첨단재료, 범용

재료의 고도한 수탁 분쇄체를 가공하고 있는 기업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북 구미에 신규 사업장을 투자한 제이에스테크는 구미 소재 국내 최고의 이차전지 양극재 회사에 수산화리튬을 분쇄·가공 납품할 계획이다.

한편, 이차전지 핵심 소재 리튬은 양극재 핵심 소재인 니켈과 합성이 쉬우며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10대 전략 핵심광물 중의 하나로 업체들이 소재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가격이 비싸고 수급이 힘든 리튬을 최적화해 사용하기 위해 배터리 제조사들은 전문업체에 위탁해 순도를 높이고 이물질 제거를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제



이에스테크와 같은 업체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 구미에 신규 사업장을 투자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 말하고 “현재 구미 국가 산업단지에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산업군이 형성돼 있어 구미가 첨단소재산업의 최적지임을 자부한다”면서 또 “대한민국 국민 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방에도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가 존중 받는 지방시대가 열려야 한다”며 “경북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지방의 기적을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청, 우수 학생선수 타시도 유입 꾸준히 늘어!

학생선수 꿈을 위한 학교운동부 선진화 박차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31일, 학교운동부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북체육중고등학교 등 전국 단위 모집 학교를 중심으로 우수 학생선수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전입한 학생선수는 2021년 564명, 2022년 661명, 2023년 69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외부로 전출한 학생선수는 한 해 평균 250명이며 2023년 3월 현재는 3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학교운동부 시설환경 개선, 운동부 노후장비 교체, 안전한 훈련 환경 조성, 학교운동부 지도자 역량 강화 및 고용안정 등의 일관된 학교체육 지원정책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학교운동부의 학사관리 측면에서도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학생선수 출석 인정 결석일수 준수,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의 대회 출전 제한 등 학생선수의 학력 보장을 강화하고, 학생선수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 등 학생선수의 중도탈락 예방 정책도 한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교육청의 이러한 학교 체육정책은 지난 21년 경북에서 개최한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 43개, 은 38개, 동 56개로 고등부 역대 최고 성적 수렵에 이어 22년 울산에서 개최한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 47개, 은 39개, 동 46개로 고등부 역대 최고 성적을 2년 연속 수렵하는 등 대



외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우수 학생선수의 유입 증가는 경북교육청의 학교 체육정책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선수가 자신의 재능

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더불어 학생선수의 인권보호 및 안전한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안동시, 신규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키프 참여

- 권기창 안동시장 “글로벌 바이오·백신 생산거점 국가산단 조성 총력 다할 것”
- “2040년까지 70여 개 입주업체 4조 원 투자, 생산유발 효과는 8조 원, 고용창출 3만여 명 기대”해

안동시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신규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키프 회의’에 참석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업 투자계획에 맞는 신속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규제 해소 및 투자유치 지원 등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마련을 위해 키프 회의를 개최했다.

키프 회의에는 기업, 산업계, 관련 정부기관 및 15개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140여 명이 모였다. 국토교통부가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전략 및 추진체계를 브리핑하고, 15개 지자체는 ▲산업단지 개발구상 및 지원계획을 등을 발표했다.

이어, 도별 건의사항과 기업·산업계에 로사향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에서 답변과 함께 추후 지원방향을 설명했다.

윤근수/기자

권기창 안동시장은 “매년 20%대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가는 바이오 및 햄프(HEMP) 등 국제 바이오 산업의 호기를 맞아 안동에 구축된 바이오·백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한 글로벌 바이오·백신 생산거점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고자 한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2040년까지 70여 개의 입주업체가 4조 원을 투자하고, 이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는 8조 원, 고용창출은 3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라며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비를 최대한 지원

하고 준공과 동시에 분양이 완료되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다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세계적인 첨단 바이오 국가산업단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맺었다.

경북소방, 북부권역 구급대원 응급처치 강화교육 실시

- 119구급대원↔상황요원↔응급처치상담요원 간 협업체계 강화
- 심·뇌혈관 응급환자 현장 처치 전문교육 실시
- 이영팔 소방본부장, “부서간 소통 공조 체계, 도민 생명 보호”앞장서

경북도 소방본부는 지난달 29일, 심·뇌혈관 환자에 대한 현장 응급처치 역량을 높이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구급대원 등을 대상으로 병원 전 현장 응급처치 심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일선 소방관서 구급대원, 119종합상황실 수보요원, 응급처치 상담요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심·뇌혈관 환자에 대한 초기 응급처치 및 최초 목격자의 심폐소생술 어

부에 따른 생존을 변동을 주제로 교육과 함께 열린 토론이 진행됐다. 초빙강사로 참여한 경북대학교 김창호 교수는 국내 심·뇌혈관 환자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요 발병위험인자로 혈압과 고지혈증, 흡연 등을 제시하며 최일선에 있는 구급대원의 숙련된 현장 응급처치가 도민의 생명을 살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다.

경북소방본부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서는 심·뇌혈관 응급환자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구급대가 현장 도착 전까지 신고자에게 영상으로 심폐소생술을 안내하는 영상 스마트폰 운영을 통해 심·뇌혈관 질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영팔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

교육뿐만 아니라 일선 현장과 지원부서 간 소통을 통한 공조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해 도민 생명 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사)대한노인회 영양군지회 부설 제38기 노인대학 입학식 개최

- 배움에는 끝이 없다!” 새내기 대학생 입학하는 날
- 오도창 군수, “6개월간의 교육과정, 행복한 대학생활 되길”

(사)대한노인회 영양군지회는 지난달 31일, 영양군종합복지회관 강당에서 제38기 노인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학식에는 48명의 노인대학 입학생 어르신들과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을 가졌으며, 식전행사로 영양신바람소리 동호회의 색소폰 연주와 양수발전소 영양유치를 위한 홍보가 이어졌다.

올해 노인대학 입학생은 48명(남자 6명, 여자 42명)으로 오늘 입학식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24회에 걸쳐

진행되며, 명사초청 특강, 인문학 강좌, 요가·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축사에서 영양군의회 김석현 의장은 “배움에 대한 열정을 몸소 실천하시는 모습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학을 통해 친목과 화합도 도모하고, 지역발전의 밑거름을 마련하는 노인대학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올해로 제38기를 맞은 (사)대한

노인회영양군지회 부설 노인대학은 1984년 개설됐으며, 지금까지 1,85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우리 지역 대표 평생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의 용기에 존경과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6개월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아름다운 노년을 준비하는 행복한 대학생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대구광역시 원년 2023년 정기 조직개편 시행

- 신공항특별법 통과, 군위군 편입 등 신규 행정수요 대응
- 미래신산업 육성, 안동댐 상수원 개발 등 민선8기 핵심정책 본격 추진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원년 2023년 정기 조직개편을 시행했다. 이번 개편은 민선 8기 핵심정책들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장하고, 신공항 특별법 통과, 군위군 편입 등 신규 행정 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다.

또, 지난 3개월간 실시한 조직진단과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재설계했고, 정부 기조에 맞춰 인력

을 재배치하되, 군위군 편입에 따른 필수인력만 보강했다.

▲신공항특별법 통과 초읽기로 신공항 조직 확대는 신공항특별법외 통과 예정에 따라 중대형 물류·여객 복합공항인 대구경북신공항을 조속히 건설하고, 관광·상업·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후속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통합신공항건설본부와 공항건설단과 후속개발단으로 확대해 대구 미래 50년 변혁의 기반을 다지는데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5대 미래 신산업 육성·지원 강화는 대구 5대 미래 신산업 육성·지원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 신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높여 혁신성장실과 미래ICT국을 미래혁신성장실로 통합한다.

▲깨끗한 식수 확보, 친친 수질개선

등 맑은물 관련 조직 통합은 장기간 해결치 못한 안전한 식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내륙 수변도시를 조성하는 등 맑은물 관련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을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보건·의료체계 정상화 및 재난 안전체계 재정비는 코로나19가 안정화됨에 따라 그간의 의료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온전한 일상회복을 준비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 조직을 시민안전실에서 기존 복지국으로 이관, 보건복지국으로 개편한다.

다만, 신종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해 보건·의료 조직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2과 9팀에 45명을 3과 12팀 60명으로 보다 확대 된다. 또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과 대응을 강화 하기 위해 시민안전실을 재난안전실로 개편한다.

더불어, 그간 분리돼 있던 중대시민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체계를 일원화하여 '중대재해예방과'를 신설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시설물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안전과'를 신설한다.

▲군위군 편입에 따른 행정 공백/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7월 1일 자로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됨에 따라 군

위지역 소방력 강화를 위해 강북소방서 산하 군위119출장소와 군위119 구조대 등을 신설 *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산하에 가축 방역, 도축 검사, 축산물 안전성검사 등을 수행하는 동물위생시험소 군위지원과를 신설한다.

개편 결과, 대구시 조직은 본청 3실·14국·2본부·89과에서 1국이 늘고 1본부·89과 체제를 갖추게 되며, 총 정원은 6,404명에서 88명 증가한 6,492명으로 조정됐다. 군위군 편입으로 경북에서 소방직 71명이 이체됐으나, 조직 개편을 통해 실제 증원되는 인력은 17명으로, 인력재배치 원칙에 최소한의 필수인력만을 보강했다.

이번 정기 조직개편안은 3월31일(금)부터 임박예고를 시작해, 4월 25일 개화가 예정된 대구광역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3차 의결을 거쳐 5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개편을 통해 그간 정체됐던 경제·산업구조 재편, 신공학 건설/후속적 개발을 본격 추진하는 등 대구가기 실현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며, "보다 강력하고 안정화된 조직 기반으로 한반도 3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Q1 :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내용은?
A1 : 개편이유는 군위군 편입, 신공항 특별법 통과 등 내·외부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5대 미래신산업 육성 등 신규행정 수요 및 정책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었다. 개편방향은 정밀한 조직진단 및 직무 분석으로 조직을 재설계해 유사 기능 통합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재배치를 통해 필수인력을 충원한다. 따라서 본청은 과 단위 이상 기구 증가 없이 17명만 증원한다. 본청은 종전의 3실 14국 2본부 89과를 3실 15국 1본부 89과로 1개국을 증가하고 1개 본부를 감소시켰으며, 정원은 88명(순증 17명 + 경북 소방 이관 71명)이 늘어난 6,492명으로 증가했다.
- Q2 : 민선 8기 출범 이후 조직개편이 빈번한 것은 아닌지?
A2 : 지난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주요 공약 추진을 위해 2차례 조직개편이 있었고, 법령개정에 따른 1차례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이는 단정장 교체에 따른 통상적인 과정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1월부터 3개월간 정밀한 조직진단을 거쳐 기존 조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요 정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정기 조직개편으로 이를 통해 대구시 조직은 효율화·안정화되었다고 평가한다.
- Q3 : 군위군 편입에 따른 대구시의 조직 변화는?
A3 : 농업 지역인 군위군이 편입되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축 방역, 도축 검사 등을 전담하는 군위지원과를 신설하고, 군위 지역을 관장하는 소방기구(군위119안전센터, 의흥119안전센터 → 대구강북소방서로 편입)를 대구 소방으로 편제하였다.
- Q4 : 감염병관리과 폐지로 새로운 감염병 대응 역량이 약화 되는건 아닌지?
A4 : 감염병 관리 기능 약화는 아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급 신설했던 조직이므로, 일상회복에 따라 폐지하게 됐다. 다만, 감염병 관리 업무는 보건·의료정책과로 이관하고, 그 인력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 확대하여 수행하게 된다. 즉, 보건·의료조직은 코로나 이전의 2과 9팀45명을 3과12팀60명으로 1과를 증가하고 3팀15명으로 편성했다.
- Q5 : 희망복지과 폐지로 복지사각계층 지원이 축소되는건 아닌지?
A5 : 복지사각계층 지원이 축소된 건 아니다. 희망복지과는 복지정책과에서 분리·신설('20.7월) 됐으나 3년간 운영 결과, 업무분화로 복지서비스 혼란이 발생, 비효율을 초래해 다시복지정책과로 일원화하려는 것이다. 다만, 대응 인력은 현 수준을 유지, 일원화된 조직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복지사각계층을 지원하게 된다.(복지사각계층 담당인력 개편 전 3팀 7명 → 개편 후 2팀 7명 편성)
- Q6 : 신공항특별법이 통과되면 공항 조직은 어떻게 되는지?
A6 : 기존 통합신공항건설본부는 1개국으로 신공항특별법 제정 및 국회 통과에 주력하였다면, 새로 신설되는 조직은 법 통과 이후 실질적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공항건설단은 민간공항 이전, 군공항 이전, 도로·철도·첨단산업단지 등 기반시설 건설을 담당하고 후속개발단은 K-2 후속적 등 종전부지를 본격 개발하는 것으로 신공항건설 전담 국을 2개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 Q7 : 시민안전실을 재난안전실로 개편하면서 재난안전 관리 기능이 축소되는건 아닌지?
A7 : 축소가 아닌 코로나19 일상 회복으로 이전의 상태로 정상화했다. 다만, 인력과 기능은 코로나 이전보다 강화됐다.(2과9팀45명 → 3과12팀60명(중1과3팀15명))으로 개편했다. 특히, 실·국에 흩어진 중대재해예방 기능을 일원화해, 중대재해예방과를 신설(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중대시민재해)+경제국 일자리노동정책과(중대산업재해))하고, 각종 도시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전담하고 초고층건물, 교량 등의 지상시설물과 상·하수도관, 가스관 등 지하시설물을 종합 관리하는 도시안전과를 신설해 사전 재난 예방 기능을 강화했다.
- Q8 : 창업진흥과를 폐지하는 이유는?
A8 : 벤처혁신과와 기존 창업진흥과의 기능이 유사·중복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창업벤처 혁신과로 통합하였다.(창업진흥과 : 기술창업 발굴, 창업기업 육성, 창업 성장펀드 조성,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등, 벤처혁신과 : 기술창업 발굴, 벤처기업 육성, ABB 성장펀드 조성, ABB 인재양성 등)
- Q9 : 미래ICT국을 혁신성장실로 통합하는 이유는?
A9 : 대구시 5대 미래 신산업 추진 조직과 기능이 혁신성장실과 미래ICT국으로 이원화돼 있어 신산업간 시너지 효과를 위해 통합, 그 기능과 위상을 확대하기 위해 경제부시장 산하 주무부서로서 2급 실장 아래 3급 국장급 기구인 미래혁신정책관을 설치해 미래신산업 정책·기획 기능을 강화했다.
- Q10 :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을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으로 변경한 이유는?
A10 : 시민들의 안전한 식수 확보는 대구시의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이다. 기존 금호강르네상스추진 기획관은 금호강과 친친 개발을 담당했으나, 환경수자원국 맑은물정책과의 맑은 물 식수 확보 기능을 흡수하여 물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특별전담조직으로 개편했다.
- Q11 : 환경수자원국·교통국 소관 부시장이 변경된 이유는?
A11 : 재난안전기능 총괄은 행정부시장 소관으로 산물 대응 조직인 환경수자원국이 경제부시장 소관이므로 최근 많은 산물 발생 신속 대응이 어려움에 따라 재난대응체계 일원화를 위해 환경수자원국을 행정부시장 소관으로 이관하고 아울러 중앙부처의 경우도 환경부는 사회부처이고 국토교통부는 경제부처임을 반영, 대구시 교통국을 경제부시장 소관으로 해 중앙부처 체계와 맞게 했다.
- Q12 : 문화유산과를 신설한 이유는?
A12 : 기존 문화예술정책과는 문화예술정책 이외에 종교, 문화재, 정신문화, 전통문화 등 업무가 과중했고, 군위군 편입에 따른 문화재 업무가 증가해 유·무형 문화재 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 Q13 : 신청사건립과 폐지로 청사 건립 정책이 폐지되는 것인지?
A13 : 신청사건립과는 폐지되지만 신청사건립을 위한 기능은 건축과로 이관, 업무를 수행하고 청사 건립이 본격적으로 재추진될 경우 즉시 과 신설 또는 인력 증원을 통해 적기 대응할 예정이다.

구미시,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로 '반도체 인력' 확보

구미시(시장 김장호)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서며 특화단지 지정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구미시는 3월 27일 DGIST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계약학과 개설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반도체 핵심 인력 15만 명 양성에 합류한다.

이번 삼성전자와 DGIST의 반도체 계약학과 설치로 지방 학생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비수도권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구미시가 전력 중인 특화단지 유치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는 평가다.

▲ DGIST ↔ 삼성전자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인재양성 확보

3월 27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과 삼성전자가 반도체 계약학과 개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계약학과란, 기업이 학자금과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졸업생을 기업에 채용하는 제도로, DGIST는 연간 30명을 5년에 걸쳐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삼성전자는 장학금 지원과 취업을 보장한다.

지역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삼성전자의 행보가 계속되면서, 지난 3월 7일 이재용 회장은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학생들과 관심 산업분야, 기술 인재를

로서의 꿈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격려했다.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는 전문기술인력을 육성하는 마이크로교과 전자과, 메카트로닉스과 등 2개 학과를 두고 있다.

▲ 인재 양성으로 특화단지 잡는다!

구미시의 반도체 인력 양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북대와 삼성전자가 지방대로는 처음으로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할 계획으로, 2025학년부터 학부생을 대상으로 신입생 모집을 논의 중인 단계다. 지금까지 국내 반도체 계약학과는 총 10개 대학에서 운영 중이거나 설치가 확정된 상태다. 삼성전자가 연세대, 성균관대, 포스텍, KAIST와 이번에 협약한 3개 과학기술원 포함 7개 대학과, SK하이닉스가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등 3개 대학과 계약했다.

포스텍과 과학기술원은 지방에 있지만 공학 중심의 특수대학 성격이 강하다. 경북대에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되면, 지방대학 중 산업체와 연계한 반도체 계약학과는 경북대가 사실상 첫 사례가 된다.

이와 함께 금오공대와 영남대도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및 특성화대학 지정 신청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구미시는 대구가톨릭대학교와 반도체산업 발전 및 인재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경상북도도 구미시는 반도체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전문 인력 양성임을 인지하고, 10년간 전문인력 2만 명 양성 계획을 수립해 산업 현장의 반도체 인력 수요에 대응한 제직자 맞춤형교육과 계약학과 개설을 기업과 협의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북 반도체 인력 양성 플랫폼」구축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 및 다양한 직무분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수급균형을 위한 장기적 플랜을 마련할 예정이다. 반도체 클린룸 및 장비 등의 공유를 통해 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고 향후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수요 급증에 대비해 충분한 규모의 인력양성을 추진 할 계획이다.

▲ 구미시, 모든 준비 끝났다!

지난 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구미 금오공대에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했으며, 최태원 SK그룹회장과 함께 SK실트론에서 열린 반도체 협약식에 참석하고 현장을



삼성SDI 구미사업장을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IT용 전자소재특화단지로 구축하고 추가투자를 집행하기로 했다.

구미시는 집적화 되어 있는 반도체 소재 부품 산업을 바탕으로 수도권 반도체 소재기업 및 전방 수요산업에 반도체 소재·부품을 공급하는 생태계 완성형 핵심 소재·부품 특화단지를 구축하여 반도체 초격차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구미시는 전자와 반도체, 첨단소재에 이르기까지 첨단산업이 발전한 지역으로 지난 50년간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반도체산업 핵심 요소인 산업단지 부지, 풍부한 공급용수, 안정적인 전력을 갖추고 있어 신속한 대규모 투자 가능하고, 앞으로 개항할 대구경북 신공항과 10km 거리로 물류경쟁력도 확보하고 있어 반도체 특화단지를 위한 모든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최근 SK실트론을 비롯한 반도체 관련 대기업의 잇단 투자는 구미의 투자 환경을 방증하는 결과다. 구미시는 기반시설, 관련기업의 집적화, 지역 주력산업과의 연계성에 인재확보까지 특화단지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어 반도체 산업 초격차 달성을 위한 신속한 성과도출이 가능하다"라며 "경북 구미가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받아 소재부품 산업의 공급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동천기자

포스텍	DGIST	경북대	금오공대	대구가톨릭대	구미전자공고
계약학과 40명 전문인력 550명	계약학과 30명 전문인력양성 50명	반도체 전문대학원 400명	SK실트론 협약 40명	반도체대학 신설 (구미시 협약)	반도체 특성학교

시찰했다. SK실트론은 구미에 본사를 둔 반도체 핵심부품(웨이퍼 분야 세계 3위) 제조 글로벌기업으로 지난해 3월 1조495억의 투자를 시작으로 올해 1조2360원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 오는 2026년까지 총 2조 2855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삼성전자에서

SK실트론	LG이노텍	데그나칩	KEC	원익큐엔씨	엘비투엔
12인치 웨이퍼 세계 3위	통신표준체기반 세계 1위	디스플레이구동칩 세계 2위	소신호 트랜지스터 세계 7위	칩트레이서 세계 1위	패키징사업 세계 3위

영덕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개최

본격적 사업추진으로 주민 활력에 기여하길 기대해



영덕군은 지난달 30일, 영덕농축산물유통단지에서 김광열 영덕군수를 비롯해 손득수 영덕군의회 의장 및 의원 등 내빈과 지역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기본계획 승인에 따른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1년 농촌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에 선정돼 중앙계획지원단(농식품부)의 자문회의를 통해 지난 2월 기본계획을 승인받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군은 이번 사업의 비전을 '주민 스스로 신역력을 만들다'로 정하고 공동체, 여성, 청년이라는 전략으로 신활력

Y센터 건립 등 8개의 세부사업을 신활력추진단과 더불어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는 최영식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용역사의 기본계획 승인 과정 및 기본계획 내용 설명, 주민들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승인을 위해 힘써 주신 추진단과 지역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추진단과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장문화/기자

심뇌혈관질환 예방 돕고 사랑의 이·미용 봉사까지 '호평' 예천군·경북도립대학교

- 경로당 찾아가 예방 교육 및 커트·팜·염색 봉사로 어르신들 함박웃음 - 도립대 학생들, '직접 구운 빵 간식, 훈훈한 분위기 조성'

예천군은 지난달 31일, 경북도립대학교 보건미용과 학생들과 함께 감천면 천향 경로당을 찾아가 심뇌혈관질환 예방 교육 및 이·미용 봉사활동을 펼쳤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교육은 교통이 취약한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부터 보건미용과와 연계해 학생들이 그동안 배운 실력을 오해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날 커트·팜·염색과 손·발톱을 관리 받으신 어르신들은 손자·손녀 같은 학생들에게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했으며 학생들은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구운 빵을 간식으로 전달하는 등 훈훈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경북도립대학교 관계자는 "예천군과 협의해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학생들의 사회적 인성 공동체 역량을 키

우고 지역사회에 봉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남기 보건소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군민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직접 걸러링 북과 프레젠테이션 등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이론교육과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며 "군민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울진군, 「재난안전통신망 합동훈련」 실시

손병복 군수 "재난/안전사고 관리, 군민 생명·안전에 선제적 대응"

울진군은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 주관, 경상북도청, 울진군청, 경북소방본부, 경북경찰청,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군국유림관리소, 울진산림항공관리소, 울진군의료원, 울진소방서, 울진경찰서, 육군 제5312부대 1대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울원자력본부, 한수원 등 재난안전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재난안전통신망 합동훈련」을 가졌다.

재난안전통신망은 행정, 경찰, 소방, 해경 등 재난 관련 기관별 통신망을 일원화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전국 단일의 무선 통신망이다.

이번 훈련은 평시에는 울진재난상황실을 상시 상황관리 상태로 유지하면서 재난 시에는 누구나 즉시 상황전파를 할 수 있고, 재난대응 시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즉각 상황전파를 할 수 있는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체계 구축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울진군은 소방서, 경찰서와 함께 상황관리 유지와 재난상황 전파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울진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오후 1시 30분에 정기 교시를 하고 근무시간에는 안전재난과에서,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는 당직실에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울진군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편성과 재난관리 위기관리 매뉴얼 담당자들 사용자 교육과 합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누구나 즉시 재난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군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추진하고,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군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신규 국가산단 성공 조성 위한 범정부 '원팀' 시동 건다

- 국가산단 조성 추진 위한 중앙·지방 범정부 추진지원단 Kick-off 회의 개최 -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국가산단 조성 현안 및 SOC사업 강력 건의

지난달 15일 발표된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3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산단 후보지 광역·기초지자체, 중앙부처(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농림부, 산업부, 환경부, 중기부) 및 관련 공공기관(국토연구원, LH, 수자원공사, 산업단지공단)이 한자리에 모여 범정부 추진지원단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범정부 추진지원단(정부·지자체·민간전문가·연구기관·기업)은 국가산단 조성전략, 지자체 및 산업계의 의견을 함께 공유, 향후 개발에서 운영까지 전 과정에 함께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균형발전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고,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단지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조성을 위한 현안사항을 강력히 건의했다.

먼저, 지역의 재정을 고려해 ①국가산단 사업시행자 선정 시 최대한 LH 등 국가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신규 국가산업에 대해 ②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지정 시에도 관련 기반시설에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건의했으며, 또 지역으로의 투자촉진 및 양질 일자리 창출 지원이 가능토록 ③국가산단 내 지역별 산업특성에 맞는 특구 지정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와 별도로, 탄소중립 달성 및 산업용지의 적기공급을 위해 포함 국가산업단지 내 수소환원

제철 용지조성의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동해안권 광역도로망 구축을 위한 영일만횡단구간 고속도로, 통합신공항 항공물류 수송경쟁력 강화를 위한 북구미IC~군위IC간 고속도로건설 및 중앙고속도로(을내IC~군위IC)확장, 대구권 광역철도 1단계(경산~구미)에

이와 별도로, 탄소중립 달성 및 산업용지의 적기공급을 위해 포함 국가산업단지 내 수소환원 제철 용지조성의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이와 별도로, 탄소중립 달성 및 산업용지의 적기공급을 위해 포함 국가산업단지 내 수소환원 제철 용지조성의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이와 별도로, 탄소중립 달성 및 산업용지의 적기공급을 위해 포함 국가산업단지 내 수소환원 제철 용지조성의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윤근수/기자

의성군, 2023년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김주수 의성군수, "화랑훈련을 통해 통합방위 태세 재점검 안보태세 확립"

의성군은 민·관·군·경·소방 지역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고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달 31일,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2023년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의성군통합방위협의회 의장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통합방위예규협약 ▲대구·경북 화랑훈련 준비사항 보고 ▲통합방위작전 태세 확립을 위한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화랑훈련은 전·평시 적 침투 및 도발에 대비하여, 전 국가방위요소를 결집해, 권역별로 실시하는 후방지역 종합훈련으로서 오는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2023년 대구·경북 화랑훈련』으로 실시한다.

이번 협의에서는 2021년에 실시한 훈련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통합방위예규 정비, 주민신고망 정비, 전쟁지속 등 안보 환경의 위기 극복을 위해 안보 의식이 중요하며, 이번 화랑훈련을 통해 통합방위 대비태세를 점검하며 관련 기관과의 상호 신뢰와



협업을 바탕으로 지역 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간다고 말했다.

한편, 의성군통합방위협의회는 관내 유관기관 단체장 19명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통합방위 대비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정금자/기자

봉화군, 2023년 규제개혁 과제 보고회 및 토론회

- 군정발전전략과 연계한 현장중심의 규제혁신! - 경제, 농·축산업 등 38건 발굴 제안

봉화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군민의 생활 불편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 발굴을 위해 2023년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군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한다는 목표 아래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한 생활규제 등을 적극 발굴하고 규제개혁 및 행정혁신 분위기 확산과 관심도 제고를 위해 적극 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는 홍석표 봉화 부군수의 주제로 실과소 주무팀장 및 읍·면 부읍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위법령, 자치법규, 각종 지침 등

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 등을 경제, 농·축산업, 산림,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38건이 발굴 제안됐다.

군은 과제 내용의 타당성 및 규제 여부를 관련 부서와 재검토해 자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절차에 따라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상위법 개정이 필요한 발굴 안건 등은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홍석표 부군수는 "군민의 규제개선 관심도와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현장밀착형 규제개선과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금자/기자



안동시, 2023 신춘국악콘서트 - 그대, 봄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은 봄을 맞아 새롭게 시작하는 설렘과 기다림의 마음을 담은 '2023 신춘국악콘서트 - 그대, 봄'을 31일 저녁 7시 30분 오후 홀에서 진행한다.

1부에서는 '놀다가 악단'의 국악관현악의 웅장한 사운드와 대북 퍼포먼스, 채한숙예술무용단의 아름다운 몸짓으로 국악 콘서트의 화려한 포문을 연다.

2부에서는 원조 국악 신동으로 국립창극단의 간판스타로 활동하는 유태평양, 경기민요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이희문과 농놈'이 출연해 장르를 뛰어넘는 공연을 펼친다. 마지막으로 1세대 미스트롯 '가수 정미애'가 출연하여 신나는 트로트 무대를 장식한다.

한편,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은 안동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의 기쁨을 도민들과 함께 하는 의미에서 '2023 신춘국악콘서트 - 그대, 봄'과 4월 7일 저녁 7시 30분 진행되는 '뮤지컬 6시 퇴근'을 경북 북부 지역민 누구나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관람료 50% 할인 이벤트로 진행한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기획공연 '2023 신춘국악콘서트 - 그대, 봄' 관람료는 R석 5만 원, S석 3만 원, A석 1만 원으로 5세 이상 관람이 가능하다.

윤근수/기자



구례군 "지리산 스카이런" 체험시설 개장

해발 568m에서 하늘을 나는 쾌감을 느껴보세요!

구례군 광의면 온당리 지리산정원에 설치된 질악이어 체험시설 "지리산 스카이런"이 지난 31일 구례 300리 벚꽃축제에 맞춰 개장했다.

지리산 스카이런은 출발지와 도착지의 높이차로 생기는 중력에너지를 이용, 탑승자가 개인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빠른 속도로 짜릿한 스피드를 체험하는 활강레포츠로 국내 질악이어 체험 시설 중 최고 경사율을 자랑한다.

위탁사로 선정된 (주)켈러저 코리아는 정식 개장 전인 지난 27일부터 3일간 관내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하여 시설과 개선사항을 점검하는 등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지리산 스카이런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한 후에 즐길 수 있다. 셔틀버스로 모노레일 탑승장까지 이동 후 모노레일로 환승하여 구례생태대에서 지초봉 상부에 있는 정류장(해발 568m)까지 가서 안전 교육을 받고, 야생화 테마랜드 상공 1.1km를 질악이어로 하강하는 데 약 60분이 소요

된다. 지리산정원에서의 힐링과 함께 액티브 체험까지 가능한 지리산 스카이런은 구례군의 차별화된 관광명소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구례군은 2025년까지 지리산 스카이런과 연계하여 지리산정원에서 지리산호수공원에 이르는 국내 최장 공중 체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성현/기자



영광군 교통문화지수 전국 1위 수상

2022년 교통문화지수 우수 지자체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

영광군은 2022년도 교통문화지수 우수 및 개선 지자체 평가에서 영광군 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우수한 경쟁력을 인정받아 군지역 전국 1위를 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교통문화지수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민의 교통안전의식과 교통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운전행태, 교통안전, 보행 행태를 관측·설문 조사 등으로 평가한 지수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매년 지역 간 교통문화지수를 비교 평가하여 교통문화 수준이 우수한 지자체를 포상함으로써 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자율적 경쟁을 촉진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을 계기로 군민의 교통안전의식을 한층 고취하고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순/기자



전북도, 4월 10일까지 산불방지 중점 추진기간...총력 대응!

청명·한식 전후 입산자 늘며 산불 위험 높아질 전망

전북도는 산불 발생 위험이 최고조에 이르는 청명·한식(4.5~4.6) 전후 10일간을 산불방지 특별대책 중점 추진기간(4.1~4.10)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명·한식일에는 묘지 이장이나 사초 등 산일을 하다가 부주의로 인한 실화 가능성이 크다. 또 봄철 입산자가 늘면서 유령산과 사찰변, 상습무속 행위지 등에서 산불 발생 위험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중점 추진대책을 ▲사전대비, ▲예방활동, ▲현장대응, ▲국민안전 분야로 세분화해 추진한다.

우선, 사전대비 분야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별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현장 감시인력을 확대한다.

예방활동 분야로는 도내 주요 전광판 및 민방위경보시설, 사회 관계망, 마을 방송, 현수막 등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감시원 등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통제 감시시간을 확대한다.

특히, 가장 중요한 현장대응 분야인 산불대응에 있어 도에서 운영하는 진화헬기 3대와 산림청 진화헬기 8대의

공조로 초기 진화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는 예방진화대 이외에 산림청 소속 공중·특수진화대 등 정예인력까지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안전 분야는 GPS 기반 산불재난안전통신기를 활용한 실시간 현장정보 공유,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통한 행동요령 안내, 주민대피장소 등 관련 정보 제공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신속하고 체계적인 산불재난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도에서는 산불이 발생해 대형산불로 확대될 경우 도청 직원들에게 총동원령이 발령되며, 불법 소각방지를 위한 산림·농업·환경부서의 합동단속도 강화된다.

도내 군부대에는 기상여건을 고려

한 사격훈련이 조정되고, 각 소방서는 주택 화재에 따른 산불비화 전 화재상황을 산림당국과 공조한다. 또한, 한 전에서는 전력설비 고장에 의한 산불방지를 위해 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며, 산불상황 시에는 지역 산림조합별 작업단 등을 진화자원으로 활용한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올해 3월말 기준 전국적으로는 340여건, 전북지역에서는 31건의 산불이 발생한 바 있고, 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산불발생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마다 청명·한식 기간 전후에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도민 모두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산불예방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남출/기자

남원시 요천 수경 음악분수, 요천 벚꽃에 즐거움을 더하다

벚꽃이 더해져 아름다움이 절정인 남원 요천에 '요천 수경 음악분수'가 오는 4월부터 본격 개장한다.

요천 수경 음악분수는 요천 둔치에 지난 21년 설치됐으며, 지난 해 개장하여 아름다운 남원 요천 야간경관과 어우러져 남원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이색 볼거리를 제공하여 많은 찬사를 받은바 있다.

남원 요천 수경음악분수는 남원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요천 둔치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설치됐으며, 폭 42m 규모 수주펌프 34대를 이용하여 최대 30m까지 분수가 상승하는 남원최대 음악분수로 조성됐다.

특히 12종의 분수쇼와 동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워터스크린, 색색별로 화려한 조명쇼가 더해져 가족단위,



연인, 남녀노소 누구든지 남원을 즐기고 추억할 수 있는 색다른 공간으로 조성됐다.

시 관계자는 "요천 수경 음악분수를 통해 우리시는 앞으로도 이색적인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더 특별한 남원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보성군, '제78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개최

보성군은 31일 득량면 오봉산 일원에서 제78회 식목일을 기념하기 위해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철우 보성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산림조합 관계자, 임업후계자와 지역주민 등 약 450명이 함께했다.

보성군은 식목일 취지에 맞춰 사계절 꽃이 피는 동백나무, 차나무, 히어리 등 5종 총 1,550본을 득량면 해평리 5ha 일야에 식재했다.

봄철 산불 예방과 쾌적한 산림조성을 위한 쓰레기 수거 등 산지정화 활동을 병행해 행사 의미를 더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10년, 20년 뒤 미래의 울창한 숲 조성을 위해 이번 식목일에 나무심기에 군민 여러분께서도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미세먼지 감소, 가뭄 방지, 산림휴양 등의 효과를 지닌 숲을 한순간에 잃지 않기 위해 봄철 산불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영안/기자



21세기 담양포럼, 이종찬 전 국정원장 초청 특별강연 성황리 개최

새단장한 담양문화회관에서 '대한민국 100년을 말하다' 주제로 강연

담양군은 지난 29일 담양문화회관에서 이종찬 전 국정원장을 초청해 '대한민국 100년을 말하다'는 주제로 제 182회 21세기 담양포럼을 개최했다.

새단장한 담양문화회관에서 4년 만에 개최한 이번 포럼은 많은 군민과 공직자가 참석해 637석의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이 전 국정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1919년부터 2023년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4주년을 기념해 '역사를 잇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로 역사의 중요성과 연속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 역사적 정체성 정립을 위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의 건립 의미를 되새겨 보며,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사실과 가치에 대해 설명했다.

이 전 국정원장은 "옛 주조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해동문화예술촌과 기존 시설을 보존해 새단장한 담양문화회관과 같이 곳곳에 역사를 보존하려는 담양군의 노력이 인

상깊었다"며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담양군의 밝은 미래와 앞으로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병노 군수는 "4년 만에 담양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첫 포럼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강사를 초빙해 군민 누구나 참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인문학 교육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홍곤/기자

고향을 살리는 아름다운 기부!

나주시 고향사랑기부제



태백시, 2023년 1분기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정인숙 건설도시국장, “시민 안전 확보로 불편 최소화 중요성” 강조



태백시는 지난 29일, 2023년 1분기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1분기 도로관리심의회는 통동 소하천(내량천) 정비사업, 장성동 단단마을 전력선로 및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 철암 쇠바우골 커뮤니티 하우스 상수관로 매설공사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시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공사 중 어떠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했으며,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한 공사 관리를 하기로 했다. 심의 결과는 공사 시행사에 통보되며, 공사 시행사는 통보내용을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도로점용(굴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도로관리심의회 부위원장 정인숙 건설도시국장은 “도로공사 시행에 앞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도로관리심의회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시는 도로의 중복 굴착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이미 매설되어 있는 각종 점용물에 대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분기마다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유근상/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적 출범을 위한 불업 조성에 나서

31일 벚꽃축제에서 대국민 홍보 실시와 더불어 행정체계 정비 철저

강릉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펼치고 행정체계를 정비하면서 불업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

31일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는 경포 벚꽃축제 기간동안 '강원특별자치도'를 홍보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의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약칭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산림·환경·군사·농지 4대 핵심규제 완화, 강원형 미래산업 기반 구축 등과 관련한 13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22일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으며,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국회 통과라는 절차를 앞두고 있어 전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강릉시민뿐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서명 동참을 호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상춘객 대상으로 관광지 등에 홍보부스를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며, 주민회의 등을 통해 홍보 리플렛을 배부하고, 시청 홈페이지, 관내 전광판, 현수막 등을 이용한 홍보에도 힘을 쏟는다.

4~5월 걸쳐 주요 행사 및 기념일 등에 집중 홍보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널리 알릴 계획이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행정체계 등의 정비에도 박차를 가해, 현행법 조문 상 '강원도' 및 '강원도지사' 명칭을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강릉시 조례·규칙의 제명 및 조문 등의 '강원도' 명칭을 개정하는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추진 중이며, 5월 강릉시의

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명칭 변경으로 정보시스템의 기관코드가 새로 부여됨에 따라, 중앙부처 정보시스템뿐만 아니라 자체 정보시스템도 변환할 계획이며,

각종 공문 및 안내표지판 등을 차질 없이 정비하기 위한 사전 전수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여 출범 이

후 원활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 출범을 위해 전방위적인 홍보 및 행정체계 정비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강릉시민뿐 아니라 전국민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원주시, 2023년 향토·대표음식점 신규 모집

관찰사용심이, 원주뽕잎밥, 원주복숭아불고기, 원주추어탕

원주시는 지역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 상품화를 위해 향토·대표음식점 신규 지정업소를 모집한다.

대상은 관찰사용심이, 원주뽕잎밥, 원주복숭아불고기, 원주추어탕을 취급하는 음식점이다.

오는 5월 12일까지 원주시 보건소 위생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보건소의 현지 심사를 통해 업소를 선별한 후 원주시 향토음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업소에는 표준조리법 및 경영컨설팅 지도와 함께 표지판 제작

및 업소 홍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상수도 요금 30%, 지하수 수질 검사비 전액이 지원된다.

원주시는 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대표 음식과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관찰사용심이 20개소, 원주뽕잎밥 10개소, 원주복숭아불고기 4개소, 원주추어탕 17개소를 향토·대표 음식점으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향토·대표 음식점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많은 음식점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원호/기자



강릉시, 신규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참석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여 신속한 국가산단 조성 추진 위한 논의

강릉시는 31일 국토부에서 개최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범정부 추진지원단 킥오프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 1차관(이원재) 주재로 6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공기관 등이 참석했으며, 국토부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전략 및 추진체계 발표에 이어 지자체별로 산업단지 개발 구상 및 지원계획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앞으로 신속하게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관련 공공기관 등 관계자들이 정기적인 협의를 이어가기 위한 취지로 열린 첫 회의로 오는 2026년까지 산업단지 착공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강릉시 또한 구정면 금광리 일원에 조성될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착공에 속도를 내기 위해 특별자치추진단 내에 '국가산단TF팀'을 만들고, KIST 강릉분원 등 4개 연구원, 강릉소재 지역 대학 산학협력단 등과 함께 "국가산단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2026년 사업착공을 목표로 사업시행자 선정, 사업타당성 분석, 예비타당성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산업단지 계획 승인신청까지 최종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인다는 방침이다.

김홍규 시장은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는 크게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엔진이자 경제 안보를 위한 전략자산을 확보하는 전초기지의 역할



을 하는 동시에, 강릉시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강릉시는 지난 14일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선정됐다.

최만식/기자



봉화군 물야저수지 3색 힐링의 옷을 입다!

그저 흔한 저수지, 새로운 관광명사로 재탄생하다!

일반 저수지에서 친환경 웰니스 관광자원화 사업(V로드 조성사업)을 통해 총 3개 구간에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콘텐츠를 담아 새로운 관광명사로 재탄생합니다.

물야 오전리, 『娛(즐거움 오) 廬(터 진)』 즐거움이 가득한 장소로 거듭나다!

오전리는 보부상이라는 역사적인 가치와 매력이 충만한 스토리가 있는 곳으로 V로드에서부터 오전약수관광지까지 봉화 보부상들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친환경 힐링도시 '봉화군'!

오전약수관광지를 비롯해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도 연계가 가능한 지역 관광명소 중 하나로서 친환경 웰니스 관광자원화사업(V로드)을 통해 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박상돈 천안시장, 신규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참석

국토부, 신속한 국가산단 조성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발족



박상돈 천안시장이 3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주관 신규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킥오프(kick-off)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 등 중앙부처를 비롯한 후보지 선정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 140여 명의 국가산단 개발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국가산단 조성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발족했으며, 이날 신규 국가산단단지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국토부의 신규 국가산단 조성전략 및 세부 추진계획 설명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산업단지별 개발 구상을 발표하는 등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했다. 박 시장은 천안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개발구상 및 지원계획에

대해 공유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유지 99.2%인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부지에 조성될 천안 국가산단은 반도체, 미래이동수단(모빌리티) 중심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선도하고, 충남 전략산업 중심지이자 신성장동력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상돈 시장은 "천안 국가산단 후보지는 국유지인 총축장 이전부지에 조성될 예정으로 토지이용계획상 저해 요소가 없어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인근 뉴타운개발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성공적인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충남도, 첨단화학산업지원센터 문 활짝

도-서산시,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준공식...기술 개발·연구 지원 등 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충남의 첨단 정밀화학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핵심 기관이 마침내 문을 열었다.

도는 31일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김기영 도 행정부지사와 이완섭 서산시장, 조영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전통적인 석유화학 소재에서 첨단화학 소재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스마트 시스템이 구축됐으며, 첨단화학 신소재 산업 육성과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한다.

도와 서산시,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추진한 지원센터는 총 사업비 171억 2000만 원을 투입해 1322.1㎡ 규모의 연구·실험동과 복합환경피로시험기, 충격강도시험기 등 3000만 원 이상의 기후환경시험 관련 주요 장비 18종을 갖췄다.

지원센터는 앞으로 10종의 주요 장비가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며, 기업·대학 등 산학연 관계망을 구축해 거점기능을 수행한다.

주요 역할은 △충남 화학 소재산업 활성화 및 첨단화학 네트워크 구축

△패키지 장비 활용 기술 개발 지원 △시제품 제작 및 부품 소재 분석·평가인증 지원 △기업 맞춤형 연구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사업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주관하고 충남테크노파크, 충남 산학융합원, 공주대학교 등이 참여한 다.

도는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첨단 정밀화학 산업을 고도

화하고, 지역 주력산업의 신산업 전환 및 신시장 창출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고용 유발 인원 227명, 생산 유발 202억 원, 부가가치 유발 85억 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원센터를 통해서 8개 시군 총 114개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정근기자

조길형 충주시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강

'혁신 리더십' 주제로 450명 대상 소통의 시간 가져

조길형 충주시장은 지난 30일 대전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에서 '혁신 리더십'이란 주제로 공단 보직자와 예비관리자, 지역센터 직원 등 450여 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가졌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관혁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날 특강은 최근 충주시 유튜브, 지역법정 등에서 맹활약하며 혁신의 대명사가 된 충주시와 조길형 시장의 노력과 과정을 담은 강의를 통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특강에서 조길형 충주시장은 리더의 덕목, 혁신 마인드 실천을 위한 소양 등 다양한 경험과 일화를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32만 구독자를 가진 충주시 유튜브의 탄생 배경과 일화를 설명하며 시대의 트렌드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는 조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자율성과 권한을 대폭 부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기관혁신을 위한 공단의 노력에 공감하며 직원들의 혁신과 창의성을 뒷받침하는 관리자의 자세가 중요하는 당부를 끝으로 특강을 마무리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박성호 이사장은 "관리자들이 혁신 리더십과 소통의 중요성을 되새겨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향후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충주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오늘 특강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혁신문화 조성에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4대 비전과 함께 품격있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충주시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 말했다.

김원호기자



충북도 가뭄대비 도-시군 TF팀 운영 추진

기상가뭄 확산 대비 사전 총력 대응체제 구축

충북도는 3월 31일 '가뭄대비 도-시군,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가뭄에 대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 관련 실과와 11개 시군, 청주시상지청,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등 가뭄대비를 위해 20여명이 모여 도내 기상상황을 공유하고, 분야별 임무와 역할을 점검하는 등 다가올 가뭄상황에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충북도의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은 평년대비 93.7% 수준으로 기상가뭄 발생은 없으나, 5월 기준 일부지역 약한가뭄을 전망했다.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대비 97.7%, 주요 수원인 충주댐과 대청댐 저수율은 각각 53.3%, 51.1%로,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으며 정상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4~6월의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전망으로, 지속적인 기상가뭄 감시와 체계적인 용수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충북도는 가뭄대응 합동 TF팀 구성·운영, 기상청 등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가뭄에 대비하기로 했다.

또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지표수보강개발, 노후 수리시설개보수, 농업용수기반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생활·공업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상수도 현대화사업,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등 용수공급대책을 마련했다.

고정화기자

박경귀아산시장, "미래 스마트도시, 도시 경영자 고민할 것 많아"

박경귀 아산시장이 30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3 스마트시티 서밋&엑스포 - 스마트시티 이노베이션 세미나'에서 '탄정2신도시를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의 테스트베드로 활용, 스마트시티의 방향을 선도하는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주석연 국립대안과기대학교 석좌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스마트시티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는 혁신적인 생태계 구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최신 해법을 찾는 자리였다.

박경귀 시장은 탄정2신도시를 "대한민국 중부권 최대 신도시 건설사업"이라면서 "'미래를 꿈꾸고 자연이 숨 쉬는 혁신성장도시'라는 비전 실현을 목표로 설계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미래 도시는 사람 중심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시민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탄정2신도시는 도심 중앙을 가로지르는 매곡천을 활용한 자연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도시이자, 디지털트윈·메타버스 등 최신 도시관리 솔루션을 활용해 범죄와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거대 자본과 물량이 한꺼번에 투입되는 신도시 건설에는 최첨단 기술을 적용할 수 있지만, 노후화된 원도심에는 제한 시설을 설치하기 어렵다"면서 "이렇게 발생하는 원도심과 신도시 간 생활편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지 도시를 경영하는 시장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스마트시티는 결국 여러 데이터를 수집한 뒤 이를 활용해 사람의 삶은 편리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되고 관리되고 사용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 어쩌면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수집과 해석이 중요해지는 스마트도시 시대에는 도시경영자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확보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데이터는 일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닌, 시민과 공유되어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데이터 공유를 위한 제반 기술 개

김원호기자

청주시, 충북 도내 '최초' 청사 어디서나 공공와이파이 팡팡!

청주시 모든 청사에서 공공와이파이 이용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청사 민원실에서만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서비스 범위를 청사 전체 업무공간까지 확대해 시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과 직원 모두에게 공간 제약 없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4월 1일부터 정식서비스를 개시하며, 모든 청사에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충북 도내 최초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월 9일 청사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KT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월 중 와이파이 시스템 구축 및 시범서비스를 완료했다.

이번에 구축된 공공와이파이 시스템은 방화벽, 인증서버, 무선컨트롤러, 무선 AP 등 보안기능을 강화했다.

청주시 청사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하려면 단말기 와이파이 설정에서 Cheongju WiFi free를 선택하면 이용안내와 함께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보다 안전한 보안접속 방법인 Cheongju WiFi Secure 이용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와이파이 운영지역을 최소화해 시청사 어디서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품질을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시민과 직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청주 구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는 시민들이 통신요금 걱정없이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실, 공민, 버스정류장 등에 공공와이파이 존을 구축 운영하는 중이다.

고정화기자



조병길 사상구청장, 대한민국 글로벌크라운 대상 지방자치부문 수상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3월 3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글로벌크라운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글로벌뉴스통신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글로벌크라운 대상은 정치, 지방자치, 국제, 사회 등 8개 부문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사회 각 분야의 인사들을 선정해 시상한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38년간의 공직생활과 구 의회 의장을 거쳐 행정 전문성을 고루 갖추고 제9대 사상구청장으로 선출됐다. 취임 후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재산세 20% 감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20% 인하, 직소 민원실 설치를 통한 주민과의 소통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실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사상구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송종진/기자

광주소방, 국민행복소방정책 평가 우수상

소방청 주관 특·광역시 부문 2위 쾌거...소방청장 표창

광주소방안전본부가 소방청 주관 '2023년 국민행복소방정책(2022년 수행) 평가'에서 특·광역시 부문 2위를 차지, 우수상을 수상했다. 국민행복소방정책 평가는 매년 전국 시·도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소방정책 발굴과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소방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소방본부 여건과 규모 등을 고려해 특·광역시 부문과 도단위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있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긴급상황대응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AI) 응급의료시스템 도입사업'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국 최초 아파트 옥상출입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김병수/기자

담양군 임진택 주무관, 2023년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수상

세계중요농업유산 담양 대나무밭 보전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 공로 인정받아

담양군 농업기술센터 임진택 주무관이 지난 29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 클럽에서 개최한 '2023년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청백리 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공직에서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일조해온 유능한 인물을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로, 국회사무처가 주관하고 있다. 임 주무관은 남다른 열정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세계중요농업유산 담양 대나무밭 관리체계 구축과 핵심지역인 담양읍의 삼다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힘써왔다. 이렇듯 기후변화 대응 수종인 대나무밭을 보전·관리하며 지역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오홍곤/기자

김태식 부산북구의회 부의장 '2023 대한민국 글로벌크라운대상' 수상

김태식 부산 북구의회 부의장이 31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글로벌크라운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글로벌크라운대상'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정치, 지방자치, 국제, 경영, 경제, 사회, 의료, 문화 분야에서 대한민국 혁신 성장동력 가치를 인정받은 국회의원, 교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기업대표 등에게 수여한다. 김태식 부산북구의회 부의장은 구포1.2.3동, 덕천2동의 지역구에서 당선되어 제8대부터 제9대인 현재까지 구의원을 역임하면서 주민 복리안정, 교통봉사 등 지역사회 정치 및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송종진/기자

함안 극단 아시랑 제41회 경남연극제 단체 은상, 개인 대상 수상 쾌거

함안군을 대표하는 극단 아시랑이 제41회 경남연극제에 참가해 '후궁, 박빈'(한운섭 작, 손민규 연출)이 단체 은상을 받고 개인상으로 김수현 배우('후궁, 박빈' 흥부 처 역)가 연기 대상을 받았다. 함안 극단 아시랑의 '후궁, 박빈'은 민간 설화 '흥부전'을 모티브로한 궁중 권력 암투와 서민들이 세파에 휩쓸려 찢박받는 애환과 한을 풍자묘사한 작품이다. 연기대상을 수상한 김수현 배우는 "오랜 연기 생활에 좋은 상을 주셔서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연기를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며 "작품을 함께한 손민규 연출과 이 상을 나누고 싶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제41회에 경남연극제는 경남연극협회 소속 11개 지부 13개 극단이 참



최덕수/기자

고창군 '제16회 녹두대상', 정남기 전국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상임고문 선정

(사)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제16회 녹두대상' 수상자로 정남기 전국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상임고문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남기 상임고문은 고창 출신으로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봉준의 비서로 참여한 정책현의 손자이다.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인 1994년 3월 전국 동학농민혁명유족회를 발족해 상임이사로 실무를 담당했고, 10년 동안 제5대 유족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또한 '갑오동학농민혁명 의원 연구모임'에 강사로 나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그 후손들의 삶에 대해 알리는 등 전국적 활동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는데 크게 공헌했다.

이와 같이 30여 년간의 동학농민혁명의 정신 계승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3월 24일 제16회 녹두대상 후보자 선정위원회 위원 9명의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진윤식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이번 제16회 녹두대상 수상자인 정남기 고문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학농민혁명의 정신 선양과 계승을 위해 헌신하신 분으로 녹두대상 수상이 다소 늦은감이 있어 오히려 죄송스럽다"며 "앞으로도 녹두대상 시상상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성지로서 고창군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녹두대상'은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학술·연구·문화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



김현태/기자



농업인·국민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이 되겠습니다

함께하는 100년 농협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시도민 한마음

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 성대하게 개최돼



경주시가 2025년 국내에서 열리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에 시도민들의 의지를 담아 총력전을 펼친다. 이에 본지 취재진은 경주시민의 염원을 담은 2025 제32차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에 도전하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장을 찾아 집중 취재했다.

시는 지난 3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주낙영 시장,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 시민 700여명이 참석해,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성대하게 개최했다.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시민사회의 역량을 총 집결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경제, 문화예술, 종교, 학, 시민단체,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 총 655명으로 구성, 추진위원회 위원장 박용룡 前

경주YMCA 이사장 ▲전략기획본부 과 이상경 경주상공회의소 회장 ▲공



의 유치 세일즈 활동을 본격화 하면서, 더불어 시도민의 유치 역량을 결집하고 공감대를 확산을 위해 단체별 유치 캠페인 전개, 유치 서명 운동, 포럼 개최 등을

이날 남미경 관광컨벤션 과장은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경과보고' 브리핑에서 시는 APEC 경주 유치를 위해 발빠른 행보로, 지난 2021년 7월 6일, 이철우 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경주시의회 의장이 '지방화시대' 경상북도와 경주의 힘찬 비상을 위해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를 선언 후, 경북시장 군수협의회, 경북시군의장협의회 등, 기관·단체 릴레이 지지 선언 진행, 유치지원 콘서트, 정월대보름 행사 연계 등 유치 분위기 조성 및 공감대 형성에 주력했으며, 또한, 주낙영 시장, 김석기 국회의원, 이철우 의장 중심 전방위적 유치활동, 박진 외교부 장관,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한덕수 국무총리를 예방 경주유치를 건의했고, 각종 인터뷰 등 여러 경로로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세일즈를 전개했으며, 유치도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서울역 KTX탑승 출입구 전면 광고, 옥외전광판 표출, 언론 홍보 등을 꾸준히 실시, 여타 지역 유치

공의교본과 구승회노인회장 펠쳐
▲정보공유분과 조철재 경주문화원장 나갈
▲대외홍보분과 여준기 체육회장 예정



▲소통행정분과 이동진 이통장연합회장 ▲시민공감분과 손지익 세마을회장 ▲자원봉사분과 정재윤 종합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등 7명을 각각 분과위원장으로 임명했으며, 향후 대통령 및 유관기관을 상대로 유치·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등 대내

이이다. 이 날 출범식은 김예경 아나운서의 사회로 경주유치 취지를 기원하는 대북과 삼고무 축하공연 연을 시작으로 영상 내빈 소개, 남미경 관광컨벤션과장의 추진경과 및 유치 당위성 브리핑, 개회사, 축사, 위원 위촉식, 유치 결의문 낭독, 시민 유치 희망 메시지 영상, 유치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1월에 시도 모든 전담조직인 APEC 경주유치 TF팀을 신설, 경주시 유치지원위원회 발대식, 2월엔 경상북도 민간추진위원회 출범, 지난 3월 30일, 경주시

3. 3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전 분야 망라한 665명
추진위원회 출범

추진위원회, 범시민
유치역량 결집 및 대통령
등 유치·홍보활동 전개

APEC이 채택한 '비전
2040'의 포용적
성장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지

민간추진위원회 출범식과 함께, 본격적인 경주 APEC 유치 활동을 시작했다는 경과 보고를 드린 후,

“왜 경주시가 APEC유치를 해야 하는가?”의 유치 당위성’ 브리핑에서 ▲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도시로 한국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점,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선보이기 위한 최적지로서 한수원 본사와 월성원전을 비롯 문무대왕과학연구소, SMR 국가산업단지 유치 등 원자력 거점 첨단과 학산업도시로 세계에 대한민국 원전산업을 세일즈할 절호의 기회가 되는 점, ▲산업도시인 포항·울산·구미와 인접해 산업시찰을 통한 대한민국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 ▲또 APEC 정상회의는 정상뿐만 아니라 영부인관련 프로그램도 중요해 한국의 고유한 역사문화를 보여줄 수 있고, 특히 회의가 개최예정인 11월이 단풍 절정기로 정상과 배우자의 여러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점, ▲지금까지 소규모 중소도시의 APEC 성공 개최 사례가 많고 통상 지방도시 개최를 당연히 하고 있는데다, APEC이 지향하는 포용적 성장과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가치 실현에 가장 부합된 경주시에서 APEC 유치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외 ▲경주시는 지난 12월 화백컨벤션센터와 보문관광단지 일원 178만㎡가 국제회의 복합지구 선정돼, APEC 회의장이 될 화백컨벤션센터 증축 추진과 인근 황룡원은 정상 환영만찬 등 색다른 연회를 열 수 있고, ▲지난 2012 APEC 교육장관회의, 2015세계물포럼, 2017 OWHC 세계총회 등 다양한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축적돼 있으며, ▲공항 접근성 용이(하이코까지 1H 거리) ▲총 354개소 숙박시설에 12,000여개의 풍부한 객실을 보유하고 있고, 정상회의 대표단 객실 수는 호텔과 콘도 등 12개소 3,300여개 객실과 정상이 묵을 스위트룸은 현재 실사 대비, 숙박시설 리모델링 3D시뮬레이션 영상 제작중이고 리모델링이 필요한 콘도 관계자들과 협력하는 등 완벽한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각국 정상들에 대한 경호·안전은 예전 2005년 APEC 정상회의는 부산에서 개최됐지만, 한미정상회담은 경주가 최고인 경주에서 개최됐을 정도로 보문단지는 경쟁도시와 달리 바다에 접해 있지 않아 해상을 봉쇄할 필요가 없고, 산으로 둘러싸인 항아리 모양으로 봉쇄가 용이해, 경호와 안전이 경쟁도시 중 가장 유리하며 유사시 동국대·계명대학교 병원이 있어 신속 대치가 가능해 '2025 APEC 정상회

의 경주시 유치의 당연성'을 강력하게 피력함으로써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 주낙영 경주시장은 “22년 전, 세계대륙도 경주대회 유치 무산의 뼈아픈 일이 결코 재현 되지 않게 절박한 심정이 올라 갈 수 있도록 온갖 역량을 다해 반드시 2025 APEC 경주유치를 이뤄내겠다”면서 “시는 APEC 정상회의가 완벽히 준비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역사문화 유산도시이다. 경호안전, 1시간대의 국제공항 등 편리한 교통접근성, 14,000여실의 보문단지 풍부한 숙박 인프라, 16차례의 세계적 국제대회 성공개최 노하우와 향후, 경주 유치의 구심체 역할을 할 범시민 추진위원회와 함께 시도민의 역량을 총 집결, 대내외 유치 세일즈와 대정 부 유치 활동으로 경주를 넘어 한국의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이번 국제대회 유치에는 부산·인천·제주가 뛰어 들었다”면서 우선 조건이지만, 그동안 APEC유치에 시정역량을 총 집결해왔기에 반드시 이번 APEC정상회의를 유치 하겠다”면서 “이는 한두사람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경주시민과 경북도민 모두의 염원과 지원 등 총체적인 노력이 함께해야 소망을 달성할 수 있다”면서, 전 시도민의 공감대를 주문했다. 이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힘이 있어야 한다.

답답한 곳은 안된다. 한번오고 또 오고 싶은 경주에서 개최해야 한다.”면서, “국무총리를 뵈러 가니 APEC 때문에 찾아 온 건 이 지사가 처음이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APEC 유치를 위해서는 경주시는 오직 APEC 얘기만 하더라도 말이 나와야 한다.

APEC 유치 못하면 도지사를 그만둘 각오로 임하겠다.”면서 “최적 요건을 갖춘 경주에서 2025 APEC 정상회의가 개최돼, 21개국 정상들이 함께 모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과 무역·투자 증진방안을 지방에서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특히, “단풍 절정인 11월, 21개국 정상들이 불국사 앞에서 한복을 입고 찍게 되는 사진은 경주 전통·문화를 세계로 진출하게 하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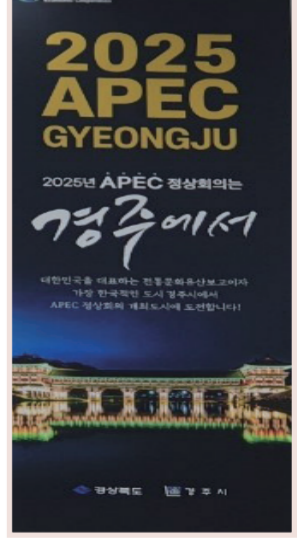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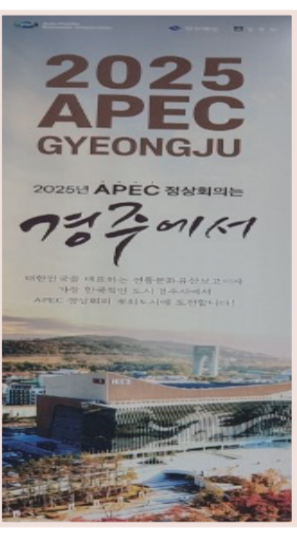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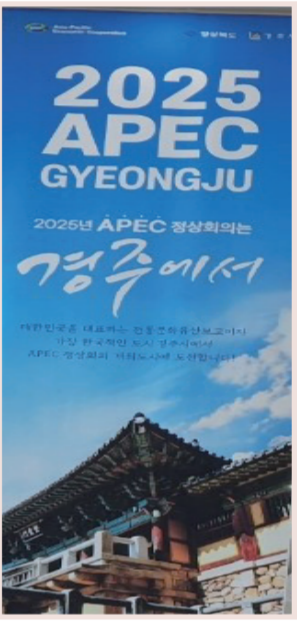
이어 2025 APEC 경주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 박용룡 前경주YMCA 이사장의 7명 분과위원장 위촉식이 수여됐고, 이어 결의문 낭독이 있었다. ▲지방시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수도권권이 아닌 지방도시 개최 촉구 ▲정상회의 개최지로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 지지 ▲경주유치를 위한 시민 역량 결집 천명 ▲경주가 최적지임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경북도민과 연대 등 경주가 2025 APEC 정상회의의 개최도시로 최적지임을 밝히고 시도민 역량을 모아가자고 결의했다.

이어, 박용룡 추진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도시 경주가 최근 여행 트렌드에 맞게 변화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상회의의 유치가 필수적이다”라며 “오늘 시민의 유치 열망을 담은 추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세계인이 머무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경주의 국제적 관광도시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유치 기원 및 응원 메시지를 위한 유치 결의 퍼포먼스와 구호제창을 끝으로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시도민 한마음 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 행사는 성대하게 마무리됐다.

한편,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국 경제협력체 목표로 설립된 국제기구로, 2005년 부산 개최 이후, 20년 만인 2025년 11월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의 의의는 각국 정상, 각료, 기자단 등 6,000여명이 참석하며, 개최도시 선정은 올 하반기로 예상되고, 현 유치 의사를 밝힌 도시는 경주·인천·제주·부산이다. 이와 같은 2025 APEC 정상회의의 유치시 기대 효과는 생산 유발 효과만 1.5조 원, 2만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 등, 시너지 효과와 관광나 각시에서는 저마다 APEC 유치에 '사활'을 걸고 유치 경쟁에 올인하고 있는 추세이다.



취재진이 봤을 때, 비록 경주·인천·제주·부산시가 유치전에 뛰어 들고 있지만, 2025 APEC 유치전을 펼치고 있는 타시와 대비해 볼 때, 경주시의 타시와 차별화된 유치전략이 매우 모범적인데다, 특히나, 앞에 언급드린대로 소규모 중소도시에서 APEC 성공 개최 사례가 많고 관례적으로 지방도시 개최를 당연히 하고 있는데다, APEC이 지향하는 포용적 성장과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가치 실현에 가장 부합하다는 점과 부산·제주와 달리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주워 먹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말처럼 유치경쟁에 일찍 뛰어 들어 KTX 유치 홍보전을 펼치는 등, 발빠른 행보와 차별화된 유치전략을 구사한 점이

확연히 돋보이고 있음을 엿 볼 수 있었다. 또한, 비록 인천이 경주시보다 한발 앞장서 유치 경쟁에 뛰어 들었지만, 인천은 지형학적으로나 복잡하고 답답한 도시인데다 관광지가 경주와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반면, 이곳 경주시는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유네스코 지정도시로 명성을 떨치며, 누구나 한번 오면 또 오고 싶어하는 곳이기도 이번 2025 APEC 정상회의의 유치의 최적지로서 결코 손색이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하나, '만사불여튼튼이다.' 이 엄청난 큰 행사 유치에는 한치의 빈틈도 없었던 아니 될 터, 행사 유치를 위한 철저한 준비와 타 시와 차별화된 유치 전략과 더불어, 25만 경주시민은 물론, 300만 경북도민의 힘과 지혜와 마음을 모아 사즉생(死即生)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 그리할시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는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 확신한다. 반드시 2025 APEC 정상회의가 경주시에서 유치돼, 경주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세계적인 명품 중심도시로 우뚝 솟아 나기를 기원드린다.

정읍시,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점검·단속 활동 펼쳐

청소년 유해 물질 판매·고용 시간 준수 여부 등 점검

정읍시가 봄철 개학기를 맞아 청소년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30일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에는 정읍시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정읍시 새마을회)을 비롯해 정읍경찰서와 연지동 새마을부녀회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점검은 청소년들이 자주 출입하는 시설인 노래연습장과 PC방을 비롯해 일반음식점과 편의점, 청소년유해업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청소년 유해 물질 판매 여부와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 준수 여부, 청소년 고용 시간 준수 여부 등을 점검·단속했다.

또 업주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에 대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도 진행하며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연지동 새마을부녀회장은 "지역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청소년 보호법에 대해 안내할 수 있는 보람 있는 시간

이었다"며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정읍시를 만들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유해업소 업주와 종사자에게 청소년 보호 의식을 확산시켜 깨끗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청소년 보호 의식 확산과 안전한 환경을 조성 위해 주기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하은/기자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대회 "허위·과장 홍보로 시민 우롱하지 마"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30일 수원시 공항협력국이 관내(봉담읍)에 운영하는 '상생협력센터'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허위 과장 홍보로 더 이상 화성시민을 우롱하지 말라로 경고했다.

화성이전반대 범대회는 이날 화성시 봉담읍에 위치한 수원 '상생협력센터' 앞에서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항의 집회를 진행했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대위는 "수원시 공항협력국은 2023년 2월 화성시 관내에 경기남부국제공항 추진을 위해 '상생협력센터' 설치, 화성시와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로 엄연한 자치권 침해, 우리 위원회는 수원시의 간악한 행위를 두고 볼 수 없으며 항의 집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진선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수원시가 운영하는 '상생협력센터'를 수원 지역이 아닌 화성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자치권 침해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즉각 '상생협력센터'를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30일 수원시 공항협력국이 관내(봉담읍)에 운영하는 '상생협력센터' 운영을 즉시 중단하라며 시위를 하고 있다.

홍 위원장 이어 "수원 군공항 화성이전을 있을 수 없으며, 민간국제공이든 전투비행장이든 결사 반대한다"면서 "군 공항 이전이란 단어조차 언급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날 집회 직후 수원시 '상생협력센터'에 '허위 과장 홍보 및 센터 운영 중지 촉구' 항의문 제출했으며,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경기도·도의회 앞에서 '경기국제공항관련 조례 제정' 중지 촉구 항의 집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양시현/기자

여주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 총력

여주시는 3월 초부터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상습·고질적인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3년 3월 말 기준 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33억원, 과태료 체납액 27억원으로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를 한 건이라도 체납한 차량은 약 7,800여 대에 이른다.

시는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을 활용해 주 3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나서, 3월 말 현재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 체납차량 73대를 영치(1일 평균 10여 대)하여 체납액 2,800만원을 징수하

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영치 활동에 참여하는 현장 세무 공무원의 경우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 중 일부는 번호판 영치 사실에 항의하거나, 별도 고지가 없다 하여 고성과 폭언·협박을 일삼거나, 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현장 단속 직원들의 신속한 업무 추진을 방해하고, 간혹 신변의 위협까지 느껴 적극적인 영치 활동을 주저하게 만든다.

결론적으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 등 조세정의 구현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별지 서식의 영치증을 체납차량 앞면 유리창에 교부(부착)하며, 따로 체납자에게 전화 등의 개별 연락은 취하지 않는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앞남 시 번호판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시청 세원관리과에 방문하여 본인 직접 번호판을 반환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우리의 안정 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액의 우선적인 납부를 부탁드립니다"며, "원활한 현장 징수 활동을 위해 공무집행 절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성윤/기자

김제시, 김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불법 환전행위 적발 시 최대 2,000만원 과태료 부과

김제시는 오는 4월 3일부터 28일까지 김제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 및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며, 적발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가능하다.

이번 단속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부정 의심 점포를 현장 방문하여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법를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는 20년 7월부터 상품권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유통 과정을 실시간 확인

하고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탐지해 효과적인 감시·추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김용현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일제 단속기간에 김제사랑상품권 가맹점과 구매자, 판매·환전대리점을 대상으로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며, "김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울진해경, 대마·양귀비 밀경사범 집중단속 시행

울진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올에 따라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단속반을 편성해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귀비는 천연 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의약시설이 낙후된 지역 주민들이 관절통 신경통, 통증 해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매년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 장소에서 이를 불법으로 재배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는 것과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 연구를 위해서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재배가 가능하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전광판 등을 활용해 마약 성분이 포함된 양귀비, 대마 재배 금지 홍보를 진행하고, 어촌



마을 등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 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문화/기자

인천 중구 '깨끗한 영종 도시환경' 위한 구·동 합동 야간 단속 추진

인천 중구 영종동 행정복지센터는 친환경위생과와 합동으로 지난 27일 저녁 '깨끗한 영종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구·동 합동 무단투기 및 불법 소각행위 야간 단속'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야간 단속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불법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영종동 관내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투기행위 금지 및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시작으로 영종동은 오는 11월 말까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합

동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 재활용품 미분리 배출,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불법 소각행위 등이다.

해당 행위 발견 시 현장에서 확인서 징구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주변 정비 조치 등 강력한 행정행위를 통해 무단투기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폐기물 배출 방법 및 배출 시간,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등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는데도 힘쓴다.

허창호 친환경위생과장은 "영농폐

기물 불법소각은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이 영종국제도시 내 늘어나고 있는바, 불법소각 및 불법 무단투기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영종동을 시작으로 단속 활동을 영종국제도시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심규홍 영종동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습 무단투기지역 내 구·동 합동 야간 단속을 통해 무단투기행위 근절 효과를 제고하고, 쾌적한 영종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영천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집중단속 실시

영천시는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자원순환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과 환경관리원으로 구성된 16개 단속반을 편성해 주택가, 상가지역 등 상습 폐기물 불법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과 계도를 실시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음식물쓰레기·재활용품 혼합배출,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영농폐기물 불법배출 등이다.

단속결과 과태료 10건(190만원), 계도 27건을 조치했으며, 앞으로 관내 폐기물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감시와 순찰활동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는 행정감시 외에도 시민 개개인의 노력이 있어야 해결될 수 있으며,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종량제봉투 사용을 생활화하고, 특히 일몰 후 생활폐기물을 배출해 깨끗한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한반식/기자

고양시 일산동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수시 단속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30일 보행 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편의를 위해 올바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 및 현장 단속에 나섰다.

장애인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일부 침범하는 주차위반 행위는 10만원, 물건을 쌓거나 통행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면에 이중(평행)주차 시에도 주차방해 행위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1면 이중주차 10만원, 2면 이중주차 50만원). 중증장애인이거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의 경우 자동차를 미는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파트, 상가 등 모든 주차장이 단속대상이다. 윤건상 일산동구청장은 "아직까지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이

한영기/기자

완도해경, '금값 실뱀장어' 불법포획 근절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한 실뱀장어 불법포획 행위 단속 강화

완도해양경찰서에서는 지난 3월 13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실뱀장어 불법포획 근절을 위한 단속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실뱀장어는 공급량이 적어 마리당 4,000원~5,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불법포획을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있고 관내 해남, 강진, 장흥 관산 해안가에서 무허가 그물을 설치하거나 공유수면에 양수기를 이용하여 다량의 실뱀장어를 불법으로 포획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2년간 실뱀장어 불법포획 단속은 총 11건(21년 3건, 22년

8건)이며 지속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올해 2건이 적발 됐다.

이에 완도해경은 실뱀장어 불법포획 근절을 위한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불법포획 지역 해안가 입구에 실뱀장어 단속 현수막을 설치하고, 경비함정, 파출소 인력 등을 동원 해상과 육상으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지자체에 어업신고를 하지 않고 포획한 맨손어업 행위 ▲공유수면상 양수기를 이용한 민물 해양 배출행위 ▲고무보트나 어선을 이용한 불법포획 행위 등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관련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불법포획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양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영욱/기자

남한권 군수, 울릉도·독도 특별법 지정을 위해 행정력 총동원



<남한권 울릉군수와의 인터뷰>

조강제 기자 : 안녕하십니까? 문화매일 일신문의 울릉군 본부장 조강제 기자입니다.
코로나19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군민들로부터 무한 신뢰와 받고 계시는 군수님께 언론인을 떠나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먼저 군민여러분께 인사말씀을 해 주십시오.



Q : 만약 특별법으로 지정된다면 울릉군은 어떻게 달라지며, 울릉 군민들에게는 어떠한 좋은 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
A : 현재 지역구 김병욱 국회의원의실, 행안부 담당팀과 법률안을 조율 중이라 서해5도 특별법 을 감안해 설명 드리면, 연차별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국가 재정지원 특례, 사회기반시설 및 안전시설 지원, 주민생활 지원금과 농수산업 진흥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특별법이 제정되면 울릉도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군민생활, 소득, 복지에 대해 광범위하고 실질적 지원 이 가능해지고, 이런 실질적 지원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인구 증가를 유발, 지역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고, 지방자치 가치 실현과 해양 영토 주권 공고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Q : 정주여건이 악화돼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
A : 정주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먹고 살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울릉군의 각종 통계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인구 추이를 보면, 1975년도 29,479명 달하던 인구가 2000년 10,241명을 거쳐, 2022년 8,996명으로 급격히 하향했으며, 고령화 지수는 전국 평균 167.1%에 비해

460.7%, 주택 보급율은 전국 평균 102%에 비해 71%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또 공시지가 상승률은 14.76%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또한 육지와외의 접근성 불리, 고물가, 의료서비스 취약, 지역 산업 공간인 어업의 쇠퇴 등 군민들의 정주 여건은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정주여건 문제는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의 농어촌 소도시 모두가 겪고 있는 현안이지만, 그 중 울릉군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얘기이다.

Q : 10여년 동안 추진해온 특별법인데, 지금 보면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어, 울릉군 입장에서 그만큼 상황이 더 절실하게 특별법을 바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A : 그렇다. 지난 10년 사이에 비단 울릉군만의 일이 아닌 전국적으로 지방소멸이 가속화 되고 있다. 아시다시피 지방 소도시들은 수도권 인구 편중과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이에 따라 사회 활력을 잃어 가고 있으며, 또한, 대도시 위주의 개발 정책으로 인해 지방 소도시와 대도시 간의 정주 여건 편차는 더욱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연구원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울릉도는 동경 130° 48'~131° 52', 북위 37° 14'~37° 33'에 위치해 있는 섬으로 동해상에 격리된 울릉도와 그 부속도인 관음도·죽도·독도 및 삼선암·공암·죽암·청도 등 바위섬으로 이루어졌다. 주도인 울릉도는 울릉군 총면적의 98%를 차지하며 포항에서 북동쪽으로 직선거리 210km, 울산 죽변항에서 140km 떨어져 있고, 육지인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와 157km 떨어진 대한민국의 동해상에 있는 울릉도는 대한민국에서 아홉 번째로 큰 섬으로총면적은 72.86km², 인구는 8,867명에 불과 하지만 울릉군은 지정학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지방자치단체이다. 이러한 울릉도·독도가 보다 역동적인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선 이곳 울릉군이 반드시 특별법으로 지정돼야 한다. 이에 군은 10년 전인 2013년에 발의, 2016년, 2020년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하는 등, 이곳을 특별법으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이에 취재진은 특별법 추진을 위해 큰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울릉군에 대해 집중취재 했다. 특별법이란, 법의 효력이 특정한 사람이나 사항 및 특정한 지역에 한하여 적용되는 법으로 상법·군법은 민법·형법에 관하여 각각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참고로 일반법·법의 적용범위에 따라 나눈 것으로 효력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으로 보통법이라고도 하는데 특별법은 일반법과 충돌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의 법적용을 받는다.특히나, 특별법으로 지정되게 되면, 울릉군은 엄청난 혜택으로 후자들이 얘기하는 기회의 땅으로 등장할 수 있어 울릉도·독도의 특별법 지정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에 본지는 울릉도·독도를 특별법으로 지정하기 위해 정부·각 기관, 경북 도내 각 시·군을 찾아 다니며 반드시 올리는 울릉군·독도를 특별법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남한권 울릉군수를 찾아 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울릉도·독도 특별법 지정을 위한 해법을 살펴 봤다.



Q :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이 지난 10여년 전부터 추진돼 오고 있었다고 들었는데...
A : 그렇다.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지정을 위해 우리 군은 지난 2013년도에 처음 발의했는데, 이후 2016년 20대, 2020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됐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이에 군은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지방소멸위험지수가 가장 낮은 곳이 신안, 울진, 그리고 울릉군이다. 지방소멸지수가 낮다는 건 가장 먼저 쇠퇴해, 사라질 위험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다. 더욱이 위 세 지역의 특징은 영토 극단에 있는 도서벽지란 점이다. 한마디로 지리적 고립과 열악한 정주여건으로 인구유입이 어려운 곳이다. 또한 최근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한 거주 불안감마저 가중돼, 정주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런가운데 울릉도의 지정학적 위상 과 가치, 그리고 한동해 중심인 울릉군의 지역 소멸 위기 타개와 지방자치를 실현할 가장 현실 적 방법은 법률에 의한 실제적 지원을 받는 것 뿐이기에 울릉군은 특별법으로 지정돼야 한다.

Q : 취재진이 알기로는 도서지역 특별법 같은 관련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련법으로는 해결 할 수는 없는 지...
A : 도서 지역의 개발을 위해 중앙 정부와 국회는 분명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도서개발촉진법, 섬발전 촉진법, 그리고 독도의 환경보전을 위한 독도 생태계 보전법(약칭),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의한 지원과 각종 정책을 펼쳐온 것은 사실이나, 울릉군민들의 열악한 정주환경을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먼저 독도에 관한 법률은 독도 자연 생태계 보전과 개발 제한에 취지가 있고, 도서개발촉진법은 전국의 도서에 포

Q : 서해 5도는 특별법이 제정돼, 지원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A : 그렇다. 1999년과 2002년의 연평해전, 그리고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2010년 12월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고, 이후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서해 5도 종합발전

Q : 지금까지 들어 본 바로는 특별법 제정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보인다. 향후, 특별법 제정까지 추진동력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말씀해 달라...
A : 이번 경북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출현 안전을 바탕으로 '울릉도 독도 지원특별법' 제정을 경북도와 중앙부처에 공식 건의 할 예정이다. 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

Q : 끝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달라?
A : 울릉군은 가장 작은 면적, 가장 적은 인구, 가장 적은 예산을 가진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이지만, 환동해의 거점이며 해양영토 수호의 전초기지이자 독도를 기점으로 한 광활한 해양을 관리하고, 무궁무진한 해양자원의 잠재력을 지닌 동해의 보고(寶庫)이다. 이 소중한 보

괄적으로 적용,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된 부분도 없지 않다. 도서가 집중된 서남해 지역에 편중된 반면, 동해의 유일한 도서인 울릉군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당연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해양영토를 감안할시, 아쉬운 점을 감출 수 없다. 예로 현재 4차까지 약 40년간 진행되어 온 도서종합개발사업을 보면, 전남지역이 3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반면 경북은 전남 지역의 3.3%인 1천억원 정도이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의 특별한 지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Q : 취재진이 살펴본 바, 울릉군은 지리적 여건이 열악하고, 일본과의 영토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느곳 보다 정부의 특별한 관심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보는데...
A : 맞다. 영토의 끝에는 것은 접경, 국경지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군사적, 안보적 차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 울릉군은 오래전부터 일본과의 영토 분쟁이 지속돼 왔고, 육지와 최 원거리에 해당하고 동해의 유일한 도서지역이며

고 올해 국회에서 입법되도록 '울릉도 독도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방침이다. 이미 경상북도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고, 울릉도 지역구 국회의원 김병욱 의원이 특별법 발의 등 국회에서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의 입법화에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Q : 울릉군은 가장 작은 면적, 가장 적은 예산을 가진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이지만, 환동해의 거점이며 해양영토 수호의 전초기지이자 독도를 기점으로 한 광활한 해양을 관리하고, 무궁무진한 해양자원의 잠재력을 지닌 동해의 보고(寶庫)이다. 이 소중한 보

취재진은 남한권 군수와의 인터뷰에서 그의 거침없는 하이킥식 답변을 들으면서 그가 울릉군·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특히, 그는 오로지 울릉군민을 위한, 울릉군민만 바라보는, 울릉군에 뼈를 묻을 각오로 혼신을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 스타(장군) 출신 군수이다. 이와같이 탁월한 혜안을 갖고 있는 그의 강력한 추진동력과 리더십이라면 울릉군의 오랜 숙원이요, 절체절명의 과제인 울릉군·독도 특별법 지정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부디 울릉군민들의 오랜 숙원인 울릉도·독도 특별법이 제정돼, 부자 울릉군으로 힘차게 비상하길 진심으로 기원 드린다.
울릉군수 /기자



2023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봄봄봄 치유정원 청산도로 오라

2023년 4월 8일(토) ~ 5월 7일(일)
슬로시티 청산도 일원

주최: 완도군 주관: 청산도슬로걷기축제추진위원회



2023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

치유의 바다를 낚다, 청정 바다를 먹다.

2023. 5. 4(목) ~ 5. 7(일) / 4일간

완도해변공원 일원



주최: 완도군 주관: 장보고수산물축제추진위원회